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과 따사로운 햇살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 진짜 기독교 문화일까?

## 기독교 문화 점검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선한 것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뮤지컬 벤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던 열심당의 역사적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는데, 기마전차를 타고 대결하는 화려한 장면, 카타콤에 숨어 작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소망을 노래하는 강력한 음향 효과, 노예에서 장군의 양아들이 되는 드라마틱한 순간 등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를 향하시는 모습에서 오열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빌라도가 창기들의 화려한 춤을 즐기는 장면인데, 관중석에서 가장 크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 일이다. 두 시간 반가량 이어졌던 수많은 곡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큰 환호와 박수 소리였다. 관중에게는 예수님의 골고다 길보다, 빌라도의 은밀한 고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에 새삼 놀랐던 경험이다.



이어서 개정판을 쓰지 않은 이유와 함께, 소설 속 편지를 서툰 편박에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다. 그가 실제로 마귀의 입장이 되어 글을 쓰다 보니 영적으로 거의 녹다운이 되어 더 쓸 수 없었으며, 다시는 그런 영적 시련을 겪을 수 없어 개정판을 쓸 수 없다고 말이다. 루이스는 마귀 입장에서 썼듯이 천사들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열정적인 복음 사역 중에 "여러 사람에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고전 9:22)이라 고백하며, 이에 대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3)라고 설명한다. 바울의 전통을 따라 세상과 소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문화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들과 비슷한 모양이 되어, 이질감을 없애고 복음을 전할 틈새와 기회를 엿보는 노력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며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고칠 권능의 사역을 꿈꾼다(마 9:10-13).

그가 받았을 종교적 공격은 상상하기 힘들다. 웨슬리 형제가 서정적 찬송을 만들고 개혁을 꾀했을 당시, 그들은 매일 달걀을 맞아 멸절한 양복이 없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일컫는 찬송들은 문화전쟁을 이기고 마침내 울려 퍼지는 승리의 나팔과도 같다. 그뿐이 아니다. 오랫동안 타락한 매개체인 줄로만 알았던 추상화, 영상예술, 판타지 소설 등의 장르는 오늘날 복음을 나르는 중요한 수단인 듯하다. 문화와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음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유명한 워십팀의 '게임방 시리즈' 편곡을 들었다. 게임 슈퍼마리오와 카트라이더의 음원 또는 BTS의 다이내마이트의 음원 등을 전통 찬송의 간주에 넣어,



## BBC,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 위기 고조

수년 간 대리전을 벌여온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직접적으로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군이 3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 영공 밖에서 요격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피해는 매우 적지만 자국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대부분을 요격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물론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에 전례 없는 공습을 가했다"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공격이 "특정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에 대한 공격으로 최고 사령관을 비롯한 7명의 장교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란은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방위군(IDF) 대변인 다니엘 하기리는 이란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내부에 떨어져 군사 기지에 경미한 피해를 입혔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6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푸른초장 이성모 목사



기독교명저의초대 이윤석 목사



8면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2024년 일본선교 세미나

#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

아직도 전체 인구의 1% 이하만이 예수님을 믿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들이 없는 무목 교회가 많다는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는 감정적 현해탄을 복음으로 건너는 마음으로 일본 선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일본 무목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선교에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이 귀한 세미나에 초청 합니다.



### 강사: 박영기 선교사

일본선교 40년, 삿포르 지역에 8개의 일본교회 개척,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을 역임

날짜: 2024년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식사 제공)

장소: 남가주든든한교회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 참석 대상

일본선교에 관심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특히 은퇴목회자들 환영)

등록: 등록비는 없지만 미리 등록 요청 주최: SEED 선교회(562-926-4700, seedwo@gmail.com) 협력: 남가주든든한교회(김홍철목사, 213-481-2779),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협의회

등록

SEED





발행인 칼럼

후회(後悔)를 미래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둠을 지나 미래로"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회고록 제목이다. 것처럼 한국 현대사의 영욕(榮辱)을 제대로 맞본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딸로, 대통령으로, 헌정을 중단케한 사람으로 숱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책은 대통령 재임기간과 구치소에서의 시간을 회고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또 사람들이 본대로 그에게는 많은 공(功)도 있었고 어떤 과(過)도 있었다. 그의 책에는 "후회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특별히 일부 사람에 대한 관리나 일부 사건의 처리,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서의 처신 등에서 아쉬워하는 대목을 보게 된다. 그는 그의 공과(功過)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자양분으로 삼고 싶어 책을 엮어냈음이 분명했다. 그의 후회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되었고 또 미래가 될 것이다.

누군들 후회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후회를 남기며 산다. 왜 후회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그릇된 결정을 내리곤한다. 무엇인가에 스스로 가리워, 또는 누군가의 속임으로 현실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니 그런 사단(事端)이 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겐 현실을 제대로 읽었다해도 쉽게 바뀔수 없는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욕심이 후회스런 결정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당했다고나 할까. 누군가에게 있는 현실 도피라는 손쉽고도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현실 도피는 잠시 스스로를 위로해 주긴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위로는 아니다. 현실도피에서 후회(後悔)莫及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 베드로는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엄연한 현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곧 통탄의 후회를 하고 말았다.

누구나 후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 후회를 잘 활용하여 멋진 미래를 만들수는 있겠다. 개봉된지 40년 가까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膾炙) 되는 영화가 있다. 현재도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공연되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던 주인공이 그 과거로부터 구사일생(九死一生)하여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작풍이다. 그 놀라운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일이 있으니 "후회"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후회의 과거로부터 현실을 거쳐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후회는 어두움이지만 밝은 미래로 가는 계단이 될 수 있다. 인류가 누리는 오늘의 번영은 짙은 어두움을 뚫고 나온 산물(産物)이 아니겠는가. 둘러보라. 오늘의 그 어떤 핫 플레이스(Hot Place)도 어제의 실패와 후회의 역사를 지니지 않고 그렇게 우뚝 세워지지 않았다. 깊은 후회의 아픔이 저렇듯 거침없는 자태를 자아낸 것이다. 뉴욕에는 자그마치 2089개의 다리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다리는 단연코 "브루클린 브리지"이다. 이 다리를 구상하고 설계한 존 로블링은 다리가 막 착공되었을 때 사망하였고, 그 일을 이어받았던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도 불의의 사고를 만나 평생 불구가 되었다. 14년이 걸린 공사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후회하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후회를 발판으로 더 전진하여 오늘의 멋진 다리, 앞날이 더 기대되는 미래의 다리, 브루클린 브리지를 세운 것이다. 우리도 후회를 어두움의 역사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밝은 미래로만 들어가야 하겠다.

설교자여, 심 없이 회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갈망하라  
설교를 듣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몇 주 전, 나는 The Keller Center 설교 섹션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모서리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모서리를 찾는 것은 다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성경 본문 속 주제, 태도 및 적용이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으로 간주되는 요소와 어떻게 대조되는가? 이 본문이 세상이나 삶의 사고방식과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모순이 가장 날카롭게 부각되는 곳은 어디인가?

모서리 탐구는 설교자가 지나치게 길고 종종 지루한 설교에 안주하지 않고 교인들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설교에 매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모서리를 찾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을 타협의 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인의 유익이라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여나 이런 접근 방식이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것보다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의미일까?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에 기초하여 설교를 작성하는 건 아닐까? "구도자에게 민감"해지도록 성경의 거친 부분을 깎아 내거나, 설교를 "매력 있게"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설교자로서의 신념을 희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함부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신약성경에도 가려운 귀를 만족시키려는 유혹을 받는 목회자의 모습이 등장한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정치 또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집하려 하거나, 복음과는 동떨어진 조언이나 제공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설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설교의 목적이 인기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는 것이라면, 그런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알고 피상적으로만 파악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견고하고 성경에 충실한 설교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 리는 없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내용의 심각성이 여조에 잘 반영되도록 열정을 담아 전달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



은 기독교 주석가의 영원한 관심사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유창함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On Christian Doctrine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해서 반드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다. ... 또는 반드시 다양한 담론이 듣는 이들이 짜증 내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 동경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은 발명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존 카바디니는 그의 글 "The Sweetness of the Word"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주요 목표는 단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전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르침이 "지혜"롭거나 "건전"한 경우라면, 거기에 유창함이 더해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설득이 목표가 아니라면 연설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몸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 운동, 접시가 절반만 찬 식사, 쓴맛 때문에 환자가 삼킬 수 없는 약 등등, 이 모든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학적 비유를 사용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달콤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건전하게 말한다. ... 그러나 치유의 힘이 있는 달콤함, 혹은 달콤한 치유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단맛을 더욱 간절하게 갈구할수록, 치유의 힘은 더 쉽게 발휘된다.

유창함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찬사는 교만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교인들이 "저 설교자 참 대단하지 않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고 진리와 더욱 사랑에 빠지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심 없이 흥미로울 것

나는 설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몇 년 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초대 목사로 섬겼다. 2021년부터는 두 번이나 임시 목회직을 맡아 주간 메시지를 전했고, 또 전국 각지의 여러 교회나 콘퍼런스, 대학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

어디에서 설교하든 내 목표의 하나는 설교가 시종일관 흥미롭게 하는 것이다. 설교가 너무 흥미로워서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게 힘들게 하는 것.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우산.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전들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당 \$7. 뉴욕: Tel. (718) 762-0011 | 뉴저지: Tel. (201) 346-0030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 진짜 기독교 문화일까?

(1면에서 계속)

“장로님들 뒷북 잡고 쓰러지는 편곡”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 수준 높은 공연 실력을 보였다. 또 다른 잘 알려진 CCM 그룹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편곡이 화제다. 기존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재즈 화성의 반주에, 악기 팀과 보컬 전원 스타일리스트를 끼고, 메인보컬은 미니스크루에 다리를 끼고 앉아 다리를 흔들며 부르는 영상이 ‘세상 힙한 찬양’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 감독이 만들고 그리스도인 배우들이 참여했다는 흥행 가도에 진압한 무당 주제 영화도 있다. 큰 이슈가 된 워싱턴들의 담당 목사의 간증들, 감독과 배우들이 매년 기도하고 시 작했다는 오컬트 영화의 뒷이야기들이 기사와 영상으로 그들의 작품의 ‘선교적 마인드’를 뒷받침한다.

복음을 위한 세상과의 소통, 복음을 위한 젊은 세대의 문화와의 소통, 아름다운 표현이다. 소통의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고,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기독교와 세상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고 오해가 없으며 뜻이 서로 통한다’는 명제는 참으로 이상하다.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면, 세상과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을 보고 육성으로 말씀하시며 종교주의에 물든 세상은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설교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었다. 복음은 소통이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엄청난 소식이다.

이 세대는 문화 접점을 위한 모든 처방을 혐오한다. 윤리, 사랑, 선, 진실, 질서, 희생 등의 의미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유독 싫어한다. 성과 생명의 자기 선택권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논리로는 이길 수 없다. 예술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Arts for Arts Sake) 사조는 종교와 정권과 윤리도덕의 참견을 막아낼 기가 막힌 방어막이다. 이 세대와 닮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 속에, 그들이 가진 생각의 틀을 달궜다는 결심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의 변화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듣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문화에 대한 모든 종류의 태도에 깊게 머물러있던 학자의 양심으로, 소란스럽지 않더라도 강력한 에너지를 들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다. 그 첫 걸음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 함께 변하는 기독교 문화를 점검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 1. 복음 전파인가, 종교적 구걸인가?

최근 중고등학생 학습과 세례 문답 교육에서 한 학생이 뛰쳐나오고 싶었다는 고백을 들었다. 세례와 입교를 위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억지로 앉아 있고, 담당 교역자 목사님이 이제 대답해야 한다고 구걸하는 분



위기를 건디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기쁨과 은혜의 순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응답을 구걸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 듣는 순간 함께 참담함을 느꼈다.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보 취급을 당해 왔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차라리 바보로 불릴 때가 좋았다. 바보라는 말이 듣기 싫은 현대인들은 언제부터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자처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시며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겔 16:32)로 비유했다. 창치는 오히려 선물을 받고 값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물을 주가며 행을 하고,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겔 15:33) 고 탄탄 하셨다. 차라리 값을 받는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물을 주가며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을 내준다는 의미다.

최근 유행하는 “힙하다”라는 표현은 유행을 따르면서도 개성이 돋보이는 모습에 대한 칭

찬이다. 힙한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지는 찬송가는 선교적 도구인가, 아니면 귀한 것을 포기하며 내어주고 세상 문화의 관심을 구걸하는 행위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 한 번 들어달라고 사정하며 대중의 인기를 위해 포기한 것이, 그리고 얻은 것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대중의 안목이 두려워 장작한 ‘힙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루터와 웨슬리는 아니며 바울과 루이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선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애 쓰는 모든 노력이 최고로 귀하

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위상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을, 정말 소중한 것을 자존심 없이 내어주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2. 기쁨인가, 엔터테인먼트인가?

성경에서 최고의 기쁨 표현은 ‘할렐루야’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야는 시편 4:23번, 계시록에 4번 나오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잘 보여준다. 밋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외쳤던 ‘할렐루야’는 그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외칠 것을 요구했고,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란 속 매일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었다. 바울이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쇠고랑을 차고 찬양했듯이(행 16:25), 할렐루야의 기쁨은 그런 것이다. 상황에 관계 없는 영원한 구주와의 연합으로 인한 기쁨이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성 기쁨은 다른 종의 기쁨이다. 물론 오락성 놀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워트겐 몰트만의 핵심 신학이 담긴 그의 놀이의 신학(Theology of Play)을 읽어보

라. 즐거움과 희락은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할 귀중한 가치다. 다만 좋고 신날 때 춤추며 노래하는 단편적인 기쁨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게임 음원을 맡아 신나게 놀며 찬양하는 모습에 오락성이 보인다고 비판하는 경우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고난 속 피어나는 기쁨을 아는 자들의 우려일 것이다.

할렐루야를 가장 진지하게 외쳤던 다윗과 요한의 상황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을 점검하기에 적합하다. 기쁨 때 찬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기독교의 참된 기쁨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최고의 감정 상태다. 우리가 대하고 만드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요한이 말했던 할렐루야의 기쁨인지, 아니면 이방인이 단순히 춤추게 하려는 오락성 도구인지 점검하자.

#### 3. 사랑과 인내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보통은 두 가지의 태도 중 하나를 택한다. 첫 번째 태도는 부정하고 보지 않는 것이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물어버리려고 애써 무시한다. 두 번째 태도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화를 쏟아낸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 그렇지만 죄로 물들지 않은 땅도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다. 이 땅에 무균실은 있어도 죄 없는 땅은 없다. 우리가 성화를 이뤄야 할 곳은 먼지가 쌓인 땅 위며, 아무리 더러워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땅이다.

한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야 하는(엢 4:13)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고 인내하기 위해서다(살후 3:5).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무시와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단호함과 겸손함을 지키는 것은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드는 일이다. 바울은 “삼년이 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랍을 흔거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1:31) 고 호소했다. 한국의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바울처럼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르칠 그리스도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문화를 꿈꾸며, Soli Deo gloria! by 서너영, TGC

### 시론

## 행위로 쓰는 시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설명 없이 이해되는 언어가 있다. 대개 물질 명사가 거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 책상, 양복 따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언어로 분류된다. 그러나 반드시 설명되어야만 이해되는 단어 집단은 추상명사 계열이다. 이를테면 은유, 사랑, 믿음, 절제, 소망, 은혜 등은 반드시 설명을 요하는 언어들이다. 그런데 유독 설명으로 이해되는 언어들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언어들을 눈에 보이도록 해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당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산 정상에 있었음) 땅 아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형상화 했다. 우상을 만들어 분명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섬겼다.

인간은 눈에 선명히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다. 한번 상상해 보라. 사랑, 은혜, 소망을 어떤 방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의외로 그런 문제는 간단하다. 설명을 요하는 언어들은 행동, 행위로 설명되어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 방법을 사용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행위로 그 사랑을 설명했다. 그 설명되어진 것이 글로 모아져 성경이 되었다. 확실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성경은 즐거이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감동 받는 것은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 단어가 행위로 설명되어질 때이다.

오래 전 일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일본 시인 요시마쓰 고오조오 시인을 초청해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작가와의 대화’가 있었다. 필자는 마침 한국 방문 중 그곳에 초청되었다. 그 날 요시마쓰 고오조오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낭송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설명했다. 처음 본 광경이라 충격을 받았다. 시어 하나 하나를 행위로 엮어갔다. 얼핏 보면 무당이 굿하는 장면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 후 필자는 ‘행위로 쓰는 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던 기억이 새롭다.

문학에서 행위를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진실성이다. 진실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단어들을 풀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다. 크리스천 작가는 행위로 설명되는 글을 써야 한다. 믿음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설명되는 믿음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부른다. 그 행위의 객관적 자료는 물론 성경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내 증인이시니라. For God is my witness, how my love goes out to you all in the loving mercies of Christ Jesus”(빌1:8).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료가 그리스도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과 정서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설명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더욱 확실해져야 한다. 행위로 설명되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일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내가 받은 은혜’를 행위로 설명해 보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금관교회</b>  <b>담임목사: 김정민</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gan.org Tel.(82)2-493-7000 (Call),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55	<b>든든한교회</b>  <b>담임목사: 장양희</b>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4, Fax.(031)977-8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	<b>새이덴교회</b>  <b>담임목사: 소장석</b>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996-1000, 팩스(031)996-80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우)16889지번 : 죽전동 1312	<b>성실교회</b>  <b>담임목사: 김영복</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8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노재로 50(우)관동로: 01072 지번 :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8	<b>성일교회</b>  <b>담임목사: 윤상욱</b>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82)2-2643-8533-4, Fax.2648-4682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1	<b>수정교회</b>  <b>담임목사: 이성준</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 서구 불로로 64 (도로명주소)
<b>승동교회</b>  <b>담임목사: 최영대</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31)977-3341-3, 사택(031)989-2235 서울 중랑구 인동로 7-1	<b>시은소교회</b>  <b>담임목사: 김철승</b>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하이로 100번길 33 시은소교회 [이웃들 419-2]	<b>신길교회</b>  <b>담임목사: 이기용</b>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842-1988, 사택(011)82-2-842-1988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1 (C.C.M.M) 국민일보	<b>신촌교회</b>  <b>담임목사: 박나현</b>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암로 33길 11 www.esinhon.org	<b>인안제일교회</b>  <b>담임목사: 김경환</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50-1 www.inan.or.kr	<b>양곡교회</b>  <b>담임목사: 지영수</b>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평일): 오전 5:30/오후 9:00 Tel.(055)210-5900, Fax.(055)210-5510 경상남도 창원시 창성리 상산구 봉암로 411 www.yanggok.org
<b>왕성교회</b>  <b>담임목사: 김요나</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82)2-988-4813, 331-284-7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동로 308	<b>장위제일교회</b>  <b>담임목사: 신일권</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8981, Fax.(02)942-89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83	<b>주안교회</b>  <b>담임목사: jungseungjung</b>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부평성진 213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13(산곡동)	<b>창대교회</b>  <b>담임목사: 최경도</b>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19	<b>청주주님의교회</b>  <b>담임목사: 최경석</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새벽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82)2-753-9191, Fax.(043)273-8114 (28647) 충북 청주시 서현구 내수동로 133 (사정동)	<b>충신교회</b>  <b>담임목사: 이전호</b>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04427) 서울시 용인구 이천로 188



### 목사의 목상

####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 맡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다

언젠가 나는 나의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약자인 네 번째 손가락이 아팠다. 손을 쥐면 손가락이 퍼지지 않고 잠을 자고 나면 손이 쥐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온몸에 영향을 줬다. 그것이 심해지자 몸살기가 나면서 시름시름 아팠다. 그래서 잠다 잠다 견디기 어려워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 의사 분은 저의 손가

락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담해 주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손가락이 아픈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서는 그 치료 방법으로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는 길 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약지는 전혀 쓰는 데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분이 확인 차 저에게 물기를 “골프를 하십니까? 골프를 하면 왼손으로 골프채를 칠 때 약지를 쓰게

되어서 아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 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손가락으로는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디에 많이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약지는 정말 불필요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다.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없으면 이상하니까 장식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내가 그 손가락을 어디에 쓰는가를 살펴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네 번째 손가락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차 핸들을 돌릴 때도 그 손가락이 힘을 주고 있고, 캠백이를 킬 때는 반드시 이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방을 들 때에도 이 손가락에 걸어서 들었다. 그리고 보니 물건을 잡을 때에도 이 손가락이 힘이 없으면 잡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가장 힘을 많이 주며 잡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네 번째 손가락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사과 비슷한 것을 하게 되었다. “나의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가 미안하다. 나는 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만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아파 깊이 생각해 보니 너는

정말 많은 일을 하더구나. 너는 나를 위해 아플 정도로 일을 많이 하였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네가 참으로 귀한 손가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도 나의 약지처럼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흑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때에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져오게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는 꾸준히 숨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한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꾸준히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일은 그렇게 꾸준함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꾸준한 기도가 삶을 바꾸고, 꾸준한 봉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일으키고, 꾸준한 전도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나 도미니카에서 제사 훈련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변화의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나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 라고 믿는다. 성령님이 붙들어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다. 나는 모든 성도가 눈에 띄는 일만이 아니고 맡은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은혜로 꾸준히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 가운데 충성된 종이로 일컬음을 받고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 이성모 목사

(은평교회 담임, 한북기독교역사연구원장, 나누리 푸드뱅크 대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 1.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 옛사람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죄와 절망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8-19)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

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는 동안 가장 큰 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 살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고 변화된 새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을 받고 옛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것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또 칭찬받는다 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 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막 화를 냅니다. 또 칭찬을 받으면 자기가 잘난 것인 줄 알고 우쭐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

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강한 나의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영적 거성,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예수님은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

께서 사시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었지만은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난 다음 -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 3. 마지막 셋째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내게 능력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ccc7296@naver.com

## 십자가 신앙

### 갈라디아서 2장 20절

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2.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

5:17)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날마다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님이 높아 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 설교자여, 섬음이 회중을.

(2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설교가 쉽지가 않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정하는 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항상 잘한다는 건 아니다. 이 목표가 쉽지 않기에 나는 되도록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다. 이삼십 분 정도면 목

표를 달성할 거 같지만(물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삼십오 분을 넘기면 아주 힘들어진다. 설교 길이에 관해서 물었을 때, 한 설교학 교수가 말했다. “정해진 길이는 없습니다. 교인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교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설교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실제보다 교인의 집중력을 심오분 정도 더 오래 잡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의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출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피드백 없이 발전은 힘들다. 교인들이 당신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이 과연 교인들의 주의력을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하나님과의 만남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기에 설교 내용과 전달은 중요하다. 존 스토틀은 모든 설교자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설교 중간에 회중에게 임한 이상한 침묵을 목격하는 것이다. 자던 사람이 깨어나고, 기침하던 사람이 기침을 멈추며, 산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 누구의 눈도 또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듣고 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대상은 더 이상 앞에 선 설교자가 아니다. 어느새 설교자는 잊히고, 교인들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팀 켈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설교가 기록할 가치가 있는 통찰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설교에 펜과 메모지를 다 제쳐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에 차서 멍하게 만드는 지점이 없다면, 결국에는 실패한 설교이다. 레이 오르룬드(Ray Ortlund)는 이렇게 상기시킨다.

설교를 듣는 것은 강의를 듣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당신

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에 게 집중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다시금 주목하자. 사람들을 휘어잡지 못하는 설교는 자격이 없다. 우리가 정말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면, 설교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 영광을 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영광에 걸맞은 설교를 하자.

by Trevin Wax, TGC



은혜와 재물, 마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믿음에 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들이 있다. 큰 은혜를 맞보았음에도, 재물에 붙은 마음을 떼어내지 못해 영적으로 매우 비참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해지는 이들이다. '예수를 믿어도 물질이 있어야 잘 믿을 수 있고 인정받더라'는 생각, 돈 없고 뺨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것 없다는 생각, 일단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응당 나타날 변화의 성숙한 향기가 아니라, 썩은 악취를 풍겨낸다.

많은 경우, '내가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크다. 이러한 생각들이 형제간, 부모 자식 간, 성도 간을 세 상없는 원수로 만들고,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음날은 법정의 쌍방으로 만나 싸우는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 낸다. 돈 문제만 걸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영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연출해 내는 것이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신전의식(Before God)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분전생각은 고사하고, 다윗처럼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에 그저 거룩한 안타까움 만 가지게 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

물질의 손해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도 결코 제대로 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양육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물질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성도의 물질생활은 그의 예배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모든 부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목회가 잘

드림의 축복, 지독한 사랑

"받았으니 드러라" 하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예물에 대한 신앙의 바른 관점이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중에 십분의 일은 내 것"이라고 하신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분량을 정해주시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의 것인데,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욱 귀하고 좋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가 그저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세상 기록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하며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십일조의 규례 등 제물 규정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방편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얼마나 축복하시기 위함인지, 이를 강제 규정으로 드릴 헌물을 정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중에 한 부분만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갖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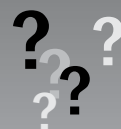
헌금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

제물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배가 실패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구약에서 본 바와 같이 가인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제물이 그들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과 축복된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물질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훈련을 위해, 헌금생활에 대해 많이 강조해야 한다. 교인들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음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은 하나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0c316@gmail.com

**Q:**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과 가정과 자녀도 가지고 있고 전문직도 가지고 있어 생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행복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 필로스버디스 SAM 집사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A:** 집사님,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께 구원과 함께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 테 롤링크가 쓴 파랑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으로 대문호로 알려지게 되었고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두 남매가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오랜 시간 헤메고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실망해 자기 집에 와보니 자기 집 새장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교훈은 행복이란 것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은 평범한 것이며 우리가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쉽게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롬 5:1절에서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영어성경은 "Let us enjoy peace with God"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칭의의 은총을 이미 받아 행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텔레비전에서 잉카 제국의 후예라고 하면서 안데스 산맥 아래 살고있는 페루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말로만 들던 잉카제국, 꿈에나 상상할 수 있었던 같은 안데스 산맥의 위용 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카 제국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원주민들을 보니 얼핏 보아도 천 년 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낙후된 모습으로 동굴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제국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움막 수준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웅기종기 모여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낙후된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부요한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명기 33: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이제 그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구속함을 받는 행복자라고 외치십시오.

하고 있고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앞선 자로 세워진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헌금생활도 훈련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과정 혹은 믿음을 갖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았던 헌금에 대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될 때 헌신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헌신이 억지로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헌신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나, 죽지 못해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마땅한 사명과 의무가 존재한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내게 주신 물질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임의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사명의 포기이며, 사명에 담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를 의미한다. 사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명과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승리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의 교회와 복음의 요구에 대해 피같은 물질 뿐 아니라, 생명까지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가 삶에 흘러가기를 기도드린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삶의 축복과 물질(돈)의 사용

-은혜, 제물, 훈련, 축복-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별것 아닌 것같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아무렴, 주님이 당하는 수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신이 얼굴이 한번 뜨뜻해지는 것은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겠는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림

특별히, 교회에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불행한 생각이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대해 사사로운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가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것을 본다. 충성꾼의 마땅한 영광을 욕됨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존재한다.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야 하고 물질을 모아야 하지만, '피 땀 흘려 번 돈'이라는 의식에 앞서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드리며 헌신하겠다는 생각이다.

즉, '피 땀 흘려 번 돈을 바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되기를 바라고, 가능한 헌금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를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관문, 그러나 축복의 관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삶의 현실은 피폐하기 그지없을 것인데, 그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신실한 성도의 온전한 예물생활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물과 예배자 자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다. 그 제물은 구별된 것이어야 하며 흠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었다. 제사에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레위기를 조금만 읽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창세기를 보아도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열납하지 않으셨을 때 그 제사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더불어, 제사는 제물만의 문제가 아닌, 제물을 드린자 예배자가 함께 하나님께 드러지고 열납되어야 함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저된 제사와 제물을 알고 거부하신다. 그러므로 제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중심부터 구별된 제물이 아니라면 일천 번제를 드려도 허사일 것이다.

두시고, 가난한 자이면 산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드리도록 하셨다. 욕심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독하게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까지 하신다.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축복의 법, 일조전납의 원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은 십일조는 율법이라고 말하며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Tax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졌으니 이제는 십일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억지로 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방송에 목소리 높여 떠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인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무거운 책망을 받을 일을 앞장 서 행하는 것뿐이다.

일조전납(一條全納), 즉 십일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다. 마치, 물건을 팔 때 Tax가 붙어 있기 때문에 Tax를 받으며 받은 Tax를 돌려주는 것이 조세법이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때때는 것이며 훔친 것이 되니 도적질한 것이 된다.

게 말하고, 온전한 헌금생활은 저들 자신의 신앙의 문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헌금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시간의 십일조, 물질의 십일조, 삶의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앞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본다. 제물을 살라버리는 것을 본다. 어느 분쟁하는 교회에 "내가 드린 헌금 다 내놔라"하는 성도가 있었다. "내가 피땀을 흘려 번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 그럴 때 무엇이냐고 하겠는가? 목회적으로 볼 때 아주 고통스럽지만 "내어 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달라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다 살라 버렸다고 말해야 한다.

물질생활, 직분, 사명

그리스도인이라 상식이나 계산에 의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의 규범인 성경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은 십일조와 헌금생활을 명령하고 있다. 신명기 14:29절이나 말라기 3:10절을 보면 십일조의 의무를 말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라마단 금식과 영적 싸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는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지만 크

리스천들은 고난주간 특별기도 모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슴속에 담아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중에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 기간동안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무슬림들이 영적인 모양을 갖추고 좀더 열심히 기도하는 형태가 아무래도 약한 영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전에 라마단 때 다양한 사건들이 특히 선교사와 현지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각종 차 사고, 자녀들이 다치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때는 더 각별히 기도도 집중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우리도 함께 부분 금식으로 영적무장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느끼는 라마단 금식의 열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라마단 금식은 30일간의 금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음식을 더 많이 폭식해서 살이 찌는 기간이고 각 가정마다 음식을 장만하는 재정은 더 필요합니다. 라마단 금식은 해 뜨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음식은 커녕,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하루 종일 주린 배를 채우려고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슬림들은 형식적으로 혹은 체면 때문에 이런 금식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

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 시작과 해제는 율법학자들이 달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매일 그 시간을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부도 저녁에(평균 이곳 시간 저녁 7시 25분) 식당에 가서 무슬림들의(Buka Puasa) 금식이 해제되고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을 관찰하곤 합니다. 근교 모스크에서 확성기로 아랍어 노래소리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소식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퍼져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받아놓고 그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만 아니라 모든 무슬림들의 삶에는 율법에 얽매어 있

습니다. 개인적인 자유는 없고 움마 공동체(이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한을 받고 철저히 규범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차체가 어둡는 세력 밑에서 세상 주관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기도는 영적인 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라마단 때 깨어서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미의 더 많은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美 플로리다 해변서 200여명 침례 '장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200여명이 단체로 세례(침례)를 받았다.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클리어워터비치에서 미국인 400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이 중 절반인 200명 이상이 해변에서 침례(사진)를 받았다고 미 기독교 매체인 CBN이 최근 보도했다. 이 특별한 해변 예배는 여성 부흥사인 제니 위버가 2022년 설립한 기독교 단체인 '코어그룹'이 주최했다. 코어그룹은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제자훈련을 하는데 지난 부활절에는 해변에서 부활절 예배를 개최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해변에서 200여명이 단체로 세례(침례)를 받았다.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클리어워터비치에서 미국인 400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이 중 절반인 200명 이상이 해변에서 침례(사진)를 받았다고 미 기독교 매체인 CBN이 최근 보도했다.

200여명이 해변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수많은 이들이 감격했다. 예배 주최자인 위버는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수백 명과 교제한 뒤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며 “정말 대단했다. 부흥이 그곳에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한 네티즌은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놀랐다”며 “영화 ‘예수혁명’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행사적으로 봄비는 해변에서 드리진 예배인 만큼 작은 소동도 있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해양 경찰이 예배 장소를 순찰하러 온 것이다. 경찰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주최 측 설명을 듣고서야 자리를 떴다고 한다. 코어그룹은 오는 여름엔 다른 지역 해변에서 비슷한 세례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변 예배를 기획한 위버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우울증을 겪었고 17세에 마약에 손대며 거리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감 생활 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과거 CBN 등에 밝힌 바 있다.

## 성경 불태우고 '죽음' 낙서하고... 부활절에 공격당한 미국 교회

부활절 무렵 미국 교회 두 곳이 공격을 당해 서구 사회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테네시주 마운트 줄리엣의 글로벌비전바이



부활절 무렵 미국 교회 두 곳이 공격을 당해 서구 사회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블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불탄 성경책 200여권이 담긴 수레(사진)를 마주했다. 담임 그레그 로크 목사는 USA투데이에 “한 남성이 교회로 들어서는 거리 입구에서 수레를 놓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이는 명백한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는 시작됐지만 가해자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세인트다니엘스커뮤니티교회는 낙서 테러를 당했다. 지역 흑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는 1800년대에 지어졌다. 이 교회 교역자는 지난달 30일 건물 외부와 내부,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가스통에 ‘죽음’을 의미하는 ‘DIE’와 백인 우월주의를 뜻하는 ‘KKK’가 적힌 것을 발견했다. 교회는 흑시 모를 위협을 고려해 부활절 예배를 취소했다. 흑인인권단체 NAACP의 프리먼 윌리엄스 뉴어크지부장은 “누군가 거룩한 주일을 겨냥해 교회를 파괴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국제기독교단체인 바나바스에이드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 박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상기시킨다”며 “예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요 15:18~20) 믿을 때쯤에 공격받는 모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 미 교계, 부활절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선포한 바이든 비난

미국 교계가 부활절과 겹친 트랜스젠더 인권의 날을 기념한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뱀티스트프레스 등 기독교언론에 따르면 남침례교신학교의 엘버트 몰러 총장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gender Day of Visibility)을 선포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몰러 총장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백악관의 우선순위가 매우 명확해졌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 학교 앤드루 워커 교수도 X(옛 트위터)에 “미국 기독교인이 신앙의 정점인 부활절을 축하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날을 기념했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단체 무디센터의 제임스 스펜서 회장은

“부활절과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날을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화합을 장려하는가”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영화 ‘예수혁명’의 실제 모델이자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십교회 창립자인 그레그 로리 목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진심으로 지켜온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특별한 용기와 공헌에 존경을 표한다”며 모든 미국인이 성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美, 동성애·반기독교 물결에 '거룩한 방파제' 법으로 맞서

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자유 보호법' 등 동성애와 반기독교 물결에 맞서는 일명 '거룩한 방파제' 법이다.



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미 50개주 가운데 24번째로 미성년자 성전환을 전부 혹은 일부 금지하는 주가 됐다. 해당 법의 골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처방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발효된다.

같은 날 집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자유보호법(SB503)이 서명했다. 이 법의 골자는 공립대학 캠퍼스가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를 막거나 학생 단체를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동여리의 지도자로 기독교인을 뽑는 것을 막으려는 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이 법을 고치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동아리 등 학생단체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기존 법을 ‘조직(학생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은 조직의 신념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스펜서 포스 유타주지사 역시 지난 21일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종교자유보호법(SB150)이 서명했다. 종교 행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 이스라엘 '고통스러운 보복' 논의... 대리 세력 타격 전망

이스라엘이 중동 내 확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대신 이란의 대리 세력을 타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우방 미국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어 대(對)이란 보복 공격이 제한적인 선택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스라엘 체널12 방송은 15일 “전시내각에서 여러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이 선택지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전시내각 각료들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체널12는 부연했다.

이스라엘 국영 라디오 칸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리쿠드 당 장관들과의 사석에서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보복 자체를 촉구하는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 NBC방송은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도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이라크 민병대 등이다. 그중 헤즈볼라와 후티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이뤄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가담했다. 다만 NBC는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이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며 “이스라엘과 협력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이 무기는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자국으로 날아온 이란의 공중 무기를 총 350기로 파악하고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 ABC방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중 9발이 방공망을 뚫었고, 그중 5발이 이스라엘 남부 네바티م 기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내 확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대신 이란의 대리 세력을 타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우방 미국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어 대(對)이란 보복 공격이 제한적인 선택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스라엘이 중동 내 확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스라엘 체널12 방송은 15일 “전시내각에서 여러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이 선택지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전시내각 각료들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체널12는 부연했다.

이스라엘 국영 라디오 칸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리쿠드 당 장관들과의 사석에서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보복 자체를 촉구하는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 NBC방송은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도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이라크 민병대 등이다. 그중 헤즈볼라와 후티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이뤄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가담했다. 다만 NBC는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이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며 “이스라엘과 협력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이 무기는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자국으로 날아온 이란의 공중 무기를 총 350기로 파악하고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 ABC방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중 9발이 방공망을 뚫었고, 그중 5발이 이스라엘 남부 네바티م 기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내 확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대신 이란의 대리 세력을 타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우방 미국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어 대(對)이란 보복 공격이 제한적인 선택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스라엘 체널12 방송은 15일 “전시내각에서 여러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이 선택지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전시내각 각료들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이란에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체널12는 부연했다.

이스라엘 국영 라디오 칸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리쿠드 당 장관들과의 사석에서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보복 자체를 촉구하는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 NBC방송은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도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이라크 민병대 등이다. 그중 헤즈볼라와 후티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이뤄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가담했다. 다만 NBC는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이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며 “이스라엘과 협력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이 무기는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BBC,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 위기 고조

(1면에서 계속)

이스라엘 구급대는 남부 아라드 지역에서 7세 배우인 소녀가 낙하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어 “오늘 밤 이란의 대규모 공격은 중대한 확전”이라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란이 “200여 대의 킬러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했다”며 이스라엘과 “지역 전역의 파트너”가 이들 대

##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

부분을 요격했다고 덧붙였다. 두 명의 미국 당국자는 BBC의 파트너인 CBS에 미군이 드론 여러

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요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는 “기존 임무 범위 내의 모든 공중 공격”을 요격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영국군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

다.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예루살렘 상공에서는 방공 시스템이 도시 상공의

물체를 격추하며 큰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영사관 공격 등 시오니스트 정권의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공

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발사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에 자

국의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편

에 선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델라웨어 별장에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 긴장이 고조되자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마친 그는 “내일 동료 G7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이란의 뻔뻔스러운 공격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란의 “무모한” 공격을 비난하며 영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우방의 안보를 위해 이들을 계속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89. 남세윤(1885-)

남세윤은 1885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 후 그는 마흔 살이 되던 1905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을 계획하고 서른여덟 살 된 부인과 아홉 살 된 딸 호미와 일곱 살 된 딸 필봉과 네 살 된 딸 필분을 데리고 제물포를 거쳐 일본에서 노동 이민선 차이나를 타고 그해 5월 29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와이에 온 남세윤은 로마 알파벳으로 Nam Sei Youn으로 통했다.

####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

191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5회 미국 남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그해 가와이섬에는 오직 한인감리교회만 있었고, 일본인 교회와 필리핀 교회와 백인교회는 없었다. 엘리엘리, 골로아, 기알리아, 가파, 길나위아, 리휘, 하나마울루, 막가웰리 그리고 각각 지역에 각각 한인감리교회가 하나씩 있어서 한인감리교회수는 아홉이었으나 이들을 네 순회지역으로 나누어 엘리엘리 지역, 가파 지역, 리휘 지역 그리고 막가웰리 지역으로 나누었다.

감독 에드윈 홀트 휴즈 목사의 사회에 개회된 본 하와이 선교연회는 남세윤을 가와이섬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가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온 지 5년이 되던 해였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에서는 권사로 남세윤 외에도 정인수를 파송하였고, 지방전도사로 차운중을 파송하였고, 순회 전도목사로 김이제를 파송하였는데 김이제는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각각 한인감리교회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세윤이 가와이섬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되었던 1910년 가와이섬 막가웰리 지역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가 열린던 그달에 보고한 교세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교인은 35명, 세례교인은 103명, 유아세례교인은

5명이었다. 주일학교는 5곳에 있었는데 교사와 직원이 14명이었고, 등록한 학생은 133명이었으며, 평균 주일에 출석한 학생은 103명이었고, 엠피스 청년회는 한 곳에 있었고, 44명이 등록하였다. 예배당은 세 곳에 있었고, 당시 시가는 700달러였다. 해외 선교국에 11달러를 헌금했고, 주일학교국에 1달러를 헌금했으며, 훈련국에 12달러를 헌금했다.

1년 후에 보고된 막가웰리 지방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참조하면 남세윤의 사역 성과를 엿볼 수 있다. 학습교인은 10명이 많은 45명, 세례교인은 18명이 적은 85명, 유아세례교인은 4명이 적은 1명이었다. 주일학교수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교사와 직원이 2명 많은 16명이었고, 등록한 학생은 21명이 적은 112명이었으며, 평균 주일 학교 출석한 학생 항목은 없었으며, 엠피스 청년회는 한 곳에 있었고, 19명이 적은 25명이 등록하였다. 예배당은 작년과 같이 세 곳에 있었고, 당시 시가는 작년과 같이 700달러였다. 해외 선교국에 헌금하지 않았고, 작년과 같이 많은 내지 선교/교회확장국에 30달러를 헌금했고, 주일학교국을 위하여 작년과 같이 1달러를 헌금했으며, 작년에 항목 자체가 없었는데 신설된 항목으로 흑인보조회와 미국 성서공회에 각각 1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작년에 했던 훈련국 헌금 조항은 없었다.

제6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11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호놀룰루 감리교회에서 있었다. 가와이섬에는 작년과 있었던 9개 한인감리교회가 그대로 있었다. 작년에 이어 감목인 네 에드윈 홀트 휴즈 목사는 남세윤을 작년에 이어 2년째 가와이섬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리

고 본 교회로 파송된 자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정인수를 권사로 파송하였고, 차운중을 작년에 이어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으며, 순회 전도목사로 김이제를 작년에 이어 파송하였는데 김이제는 작년처럼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각각 한인감리교회에도 파송하였을 것이다.

1년 후에 보고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참조하면 남세윤의 사역 성과를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그의 성과를 가늠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1913년 이후 1915년까지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남세윤의 파송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하와이 선교연회는 그를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와 지방전도사로 계속 파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15년 6월에 하와이 지방총회 아래 가와이섬 각각 지역의 대의원 이었던 이흥기 등 4명이 중앙총회에 공소장을 올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하와이 지방총회에 내는 의무금 관련하여 총회장 김종학이 5월 10일에 임시총회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임시총회에 참석한 18개 지방 대표의 자격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남세윤이 18개 지방 대표 중 가와이섬 도민회 대표로 참석했으므로 그가 교회 사역외에도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

1916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 11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있었다. 이해 가와이섬에는 막가웰리, 골로아, 리휘 그리고 길나위아에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다. 5년 전에 가와이섬에는 9개 지역에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는데 1916년에 4개 지역에만 한인감리교회가 있어 교회수로 보면 5개 지역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들은 엘리엘리, 기알리아, 가파, 하나마울루 그리고 각각 지역에 있던 교회였다.

이해의 감독 윌슨 S. 루이스 목사는 남세윤을 가와이섬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이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본 교회로 파송된 자는 작년에 파송되었던 이선일 목사였고, 그는 순회 전도목사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아 한인감리교회도 맡았다. 그런데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는 권사를 파송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선일 목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는 남세윤이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를 전담해야 했다.

그달에 보고된 교세 현황에 따르면 순회 전도목사였던 이선일 목사가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교세와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합쳐서

보고하였으므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교세만 따로 확인할 수 없다. 두 교회 교세가 합쳐진 교세로 보면 주일학교가 각각 있었고, 직원과 교사는 9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75명이었다. 유아세례교인은 9명이었고,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신앙을 고백한 입교 교인은 23명이었으며, 학습교인은 8명이었고, 세례교인은 7명이었다. 엠피스 고등부 학생은 18명이었고, 예배당은 막가웰리와 골로아에도 있었고, 두 예배당의 당시 시가는 1,950달러였으며, 전기와 연료 등에 135달러를 지출하였다.

1917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남세윤의 1년 노력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 그해에도 그가 파송되었을 것 같다.

1915년에 이어 1918년에도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에 대 풍파가 일어났다. 총회장 안현경이 행정상 명확하지 않고, 재정상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총회장이 임명된 안현경을 선출하면서 지방총회의 분립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8명 대의원 중 한 명으로 남세윤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신한민보는 이를 대서특필하여 중대한 사건으로 게재하면서도 “언론과 사실에 날으러서는 책임을 지지 않 이힘”이라고 적었다.

####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

1918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제13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모였다. 감독 에드나 라이트 레오나드 목사는 남세윤을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해에 본 교회로 파송된 자는 지방전도사로서 남세윤 외에도 안원규와 백낙M이 더 있었고, 권사로는 한재명, 이태성 그리고 연계송이 있었으며, 방WC(방화중?)은 본 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남세윤이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의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유아 세례교인이 17명이었고,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고백을 한 입교교인이 25명이었으며, 학습교인이 34명이었고, 세례교인이 160여 명이였다.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21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28명이였다. 당시 시가로 32,000달러의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에 1년간 들어간 비용이 320달러였다. 자신 기금으로 90달러를 헌금하였는데 이중 훈련비 헌금이 40달러였고, 다른 목적 헌금이 50달러였다. 그런데 필자가 찾은 이듬해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교세 통계가 없어서 남세윤

의 1년간의 전도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

제14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19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감독 매트 S. 휴즈 박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휴즈 박사는 남세윤을 작년에 이어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와 함께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자는 작년에 파송을 받았던 안원규와 정원명과 황계수가 있었는데 후자 2명은 그해에 새로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방WC(방화중?)가 담임목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흥한식 목사가 그를 이어 목사로 부임했다. 파송을 받은 권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필자가 찾은 1919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920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에서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교세를 확인하게 된다. 유아세례 교인 8명, 유아세례를 받은 후 신앙고백을 하고 입교한 교인이 2명, 지난 한 해 동안 5명이 학습을 받았고, 그해 학습교인은 인체상의 문제로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난 한 해 동안 3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해 세례교인도 같은 문제로 확인할 수 없었다. 주일 학교는 하나만 있었고, 교사와 직원이 5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60명이였다. 엠피스 청년회에 고등부 학생이 8명이었고, 중등부 학생이 22명이였다. 32,100달러 상당의 예배당이 있었고, 그해 예배당 건물에 지출한 금액이 426달러였다. 100주년 기금으로 69달러를 헌금하였다.

1920년 이후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지방전도사와 권사의 파송 명부가 없거나 일부분만 있어서 남세윤의 파송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1924년 2월 14일자 신한민보에 ‘현 순 목사의 사직설은 허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현 순 목사의 사임설을 신한민보가 보도하였는데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 남세윤이 현 순 목사의 사임설은 허무맹랑하다고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본 교회 일반 임원과 신도가 다 현 목사를 환영하므로 어찌 사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와전의 통신을 곧 정오하시옵소서라고 신한민보에 부탁하였다.

그래서 남세윤의 파송을 확인한 대로는 1910년부터 1912년까지 권사로 2년간, 지방전도사로 1916년부터 1917년까지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간 이어서 5년간이지만, 정황상 그는 1910년부터 적어도 1924년까지 14년간 권사와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전도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4년 이후 남세윤의 이름은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교회</b></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영양분/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기도: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63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b>벤틀교회</b></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동무*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b>센터빌 한인장로교회(PCA)</b></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81-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b>알칸사 제자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3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c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성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laconcpc.org 9424 S. Yo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품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7단계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10장 로마가톨릭교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mental prayer) (2)

\* 이 내용은 박흥규 목사의 번역,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인용 및 수정한 것이다.

4) 기도를 지나치게 신비적인 것으로 추가해서는 안된다

(1) 사람들이 헛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지도 못한 틀에다가 억지로 자신을 몰입시키려는 것은 전적으로 쓸모없으며 불확실한 것이고 헛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경험을 통해 검증이 된다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적자 자신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할 지라도, 전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이나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 뿌리에서 만났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채 신성을 모독하기 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누구든지 신앙적인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거짓된 것을 허락하는 것은 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쓸모도,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아무리 기적적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직접 해석할 수 없다면 그 알 수 없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이 활동할 여지가 없는,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모임을 추켜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그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정말로 그의 경험이 사실이고 그의 경험이 성경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활동이나 경험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약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성의 빛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그들의 주장을 따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주

장을 따른다면 오히려 해악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의 기초를 떠나 자신의 이해를 버리고 불확실한 환상의 바다를 헤매게 되면, 어디로 쓸리게 될지, 어디로 떠내려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2)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 활동이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거룩함을 보고, 그들의 주장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 보증되지 않고, 이성을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함이나 정직함은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지도 않다.

이런 견고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자신들의 외모로 자신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거기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의 빛과 규칙에 비추어 보면, 결코 자신의 명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 이는 그들에게 배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 소위 경험했다는 황홀경이나 신적인 계시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만큼 부패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거짓으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았으며 영적인 황홀경의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속이기 위해 '낮은' 옷을 입고 자신들의 거룩함과 위엄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때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선지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위선자들에게 불교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런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유롭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비정당한 경험을 할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환상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가정해보자. 설명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본성에 의한 것인, 혹은 사탄에게 현혹된 것인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힐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그들에게 사실로 믿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힐 때, 그들이 주

장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잘못된 생각과 환영과 행동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까지 미혹되어 빠져 있는 것보다 더 지니친 생각이나 착각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지성이나 이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성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경건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근거나 확증이 없이 미신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명상기도'에 고상한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며 기도로 인정될 수 없다

명상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중시시키고 이성의 활동을 중지시킨 채로 순전히 의지만을 집중시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인정될 수 없다. 기도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의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응하지 않거나 이에 모순이 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도로 인정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있음과 의로우심과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존재와 자중 속성과 지배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분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소망하는 영적인 지혜를 드러내어, 우리로 온전한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복음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본질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본질로 다른 것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의 일반적인 본질에 대해 모든 인간은, 비록 그들 안에 남아있는 자연의 빛이 심하게 부패했을지라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무신론적이고 아반적인 신앙의 행위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간들의 확신이 아주 크고 보편적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확신도 확고하다.

(10면으로 계속)

대학원 학생들에게 성품교육을 강의할 때의 일입니다. 부모상담교육 시간에 '성품치유'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품치유 이론과 방법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필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체는 자극에 반응해서 기억을 쌓게 되는데, 과거의 기억들이 미래의 우리 성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품이 형성된 기억을 찾아내는 '과거로의 여행, 성품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치유의 핵심은 '상처를 치유하는 7단계'를 차분히 밟아가는 것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나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느낌, 적절하게 도움받지 못하고 양육 받지 못했던 쓴 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상처를 직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곧 '치유 감정(healing feeling)'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감정의 대부분이 수치심과 증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아픔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통해, 최초의 양육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번째로 필요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내면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내 안에 숨겨둔 채 내놓지 않으면 쓴 뿌리가 되어 자랍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버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들어드릴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자기편이 있다고 안심해야 단절된 대인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면아이에게 최초의 애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세번째 단계는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에 둘러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오히려 학대한 부모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환상적인 유대(the fantasy bond)라고 하는데, 학대받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결과입니다. "엄마가 나를 때렸던 것은 내가 엄마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빠가 내 이상한 곳을 만졌던 것은 내가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야"처럼 학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한 것은 아빠가 잘못했던 거야"라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때 어린 나를 그렇게 다뤘던 것은 너무 심했던 거야"하는 객관적 인지가 필요합니다.

네번째 단계는 억눌러 왔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부모는 자녀가 분노를 표현했을 때 "앞으로 내 앞에서 소리지르지 마", "절대로 울지 마"와 같이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일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연습해야 할 좋은 성품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상처를 안정된 곳에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간단히 다루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나머지 단계와, 내면 아이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서부(CA)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교회)

“선한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는 며칠 전 멕시코 장로회신학대학(총장 임원석 목사) 학위 수여식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 잠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선 이웃 나라이지만 그래도 외국을 출입하는 일기에 번거로운 과정들도 있었습니

다. 저는 평소 선교 마인드가 약하고 목회마인드가 강하다는 주변 동료들의 평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다른 이들과 달리 선교에 맹렬한 열심을 갖지 못하고 체면 치레 선교를 구색 맞추듯이 하곤 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시 가까운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선교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인식의 새로운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는 신교학적으로 다루지는 이슈이지만 저의 작은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선교후기를 말씀 하고자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금번 다시금 새롭게 우리 주님이 선교를 매우 기뻐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로 그것을 보여 주시고 선교지를 가고 오는 여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작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일터가운데 애원을 들곤 합니다.

그 애원을 들으면서도 무심하거나 외면하기 쉬운 오늘의 교회 실정입니다.

하긴 교회 존립의 위기를 맞

은 교회들이 많고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매우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헌신 행위인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금번 삼십년이 넘게 한 곳에서 선교의 씨앗을 뿌려온 멕시코 신학대학 총장님의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부부는 말로 다 할수없는 고난의 여정을 지나 오셨겠지만 그 선교 현장의 열매와 자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엔 선교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표들이 수두룩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선교현장을 통하여 재확인 한 것입니다.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선한 선교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중에도 선한 선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선교가 선한 선교가 아닌가 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선교는 주님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 하는 선교 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동기가 순수한 선교이고, 그 방법이 순수한 선교이며 그 목적이 순수한 선교 일 것입니다. 그 선한 선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순수한 믿음으로 한 선교 지원을 통하여 목회 인생에 큰 축복의 문이 열렸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 문을 닫게 된 선교지의 한 교회를 매월 약정된 선교비로 지원하여 문을 닫지 않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단순한 믿음의 생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큰 문들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선한 동기의 선교를

기뻐 하셔서 제게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며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간증의 글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지구촌에 다시 오게 해야 함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슬람을 비롯한 세속 종교들이 파죽지세로 지구촌을 공격해 가는 현재의 기독교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소아적 시야를 극복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교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본질적인 선한 선교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오늘은 물론 미래 역사 속에 살아갈 우리들의 후손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장 시급한 선한 일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 선한 선교를 통하여 선한 선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 합니다.

cyd777@hotmail.com



홀러튼장로교회

홀러튼장로교회, 교육토크 콘서트 개최

“한 사람의 크리스천 리더가 세계를 바꾼다”

홀러튼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8일(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크리스천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홀러튼장로교회 교육 선교기관인 HONORS ACADEMY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SEED 선교회 국제 대표인 박

신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한 사람의 크리스천 리더가 세계를 바꾼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ABC통합 교구 유수연 교육위원과 함께 미국 공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자녀의 세계관, 가치관의 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다. 이어 HONORS ACADEMY 교육 디렉터티모시 리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 노하우를 배워본다. HONORS ACADEMY는 20년 이상 동부에서 중고등 학생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홀러튼장로교회에 애프터 스쿨을 개원했으며 참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9월 기독교 사립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다. HONORS ACADEMY 이지훈 목사는 “신학자 C.S Lewis는 가치 없는 교육은 아무리 유용하다 하여도 인간을 더욱 똑똑한 악마로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리더로 길러내고 싶은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행사 후에는 1:1상담 부스를 통해 자녀 교육 상담, 전문가의대입컨설팅, 변경된 디지털 SAT와 PSAT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크리스천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4)853-1414, (917)843-9100 (기사제공: 홀러튼장로교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4년 봄맞이 야외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4년 봄맞이 야외예배 가저

OC교협 직전 이사장 신원규 목사,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후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웅)는 6일(토) 봄맞이 야외예배 겸 425차 기도회를 플러튼에 위치한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가졌다. 야외예배 강사로는 OC교협 직전 이사장 신원규 목사가 초청됐다.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민길 이사장의 환영사, 부이사장 한철수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신원규 목사가 '하나님의 토브의 마음(창 1:24-31)'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이원석 목사의 인도로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과 OC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2부 순서로는 OC교계 행사 안내와 참석한 내외 귀빈을 윤우경 증경회장이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설교자로 초청된 OC교협 직전이사장 신원규 목사 부부와 OC목사회 이원석 목사 부부를 비롯해 OC교협 총무

조진용 목사, 임원 제임스 한 목사,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 타이거 양 회장 부부 등이 함께했다. 야외예배 강사로 참석한 신원규 목사는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에 '선교사자녀 장학금'으로 2,000불을 기부했다.

연합회는 매년 골프대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으며 10월 14일(월)에 Los Coyote Country Club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6월 2일에 있을 연합성가합창제의 수익금도 7월 8일부터 있을 제9차 KWMC 세계한인선교대회에 참석한 MK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매월 정기 조찬기도회와 상반기, 하반기 주요 행사를 진행하며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앙회복과 올바른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라면 교회나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위니펙우리교회 창립, 교단가입, 취임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위니펙우리교회 창립, 교단가입, 취임감사예배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위치한 위니펙우리교회 창립, 교단가입, 황성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13일(토) 오후 2시 30분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노회(노회장 함진원 목사) 주관으로 거행됐다. 황성관 목사는 “우리교회 창립과 취임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계획과 포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처럼 이끌어주시지 않으셨다.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셨고 그결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 하셨습니다”라며 “우리교회는 겸손이 담겨있다. 그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함께 우리가 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치명 목사(캐나다 동노회 서기) 집례로 열

린 이날 예배는 정성남 목사(토론토주은혜교회)가 기도했으며 함진원 목사가 ‘안디옥에서 위니펙까지(행 11:19-3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치명 목사가 교회 창립과정과 담임목사 소개를 했으며 함진원 목사가 담임목사와 교우들 서약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노회가 임서와 취임패를 담임목사에게 증정했다. 이어 이찬식, 이석원 청년이 축하연주를 했다. 이어 이기성 목사(위니펙중앙교회)가 권면, 박운장 목사(위니펙새순교회), 민정기 목사, 박순남 목사가 축사했으며 황성관 목사가 취임인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함진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울대 졸업 성악가들이 ‘스프링 콘서트’ 를 열다

공감 아티스트들 주최, 샤토갤러리에서 열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성악가들의 음악회 ‘스프링 콘서트’가 지난 4월 13일(토) 오후 4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샤토 갤러리에서 열렸다. 공감 아티스트들(Gong-Gahm Artists)이 주최하고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과 TAN TV가 후원하여 개최된 이날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박영, 테너 이규영, 소프라노 조은아, 소프라노

김주연, 베이스 장진영, 소프라노 김주혜, 피아니스트 주희정



샤토 갤러리에서 열린 서울대 졸업 성악가들의 스프링 콘서트 모습

들이 출연했다. 이들 공감 아티스트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시리즈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기사관

## CTS America, 미주 목회 인사이드 2024

CTS America는 4월 18일(목) 오전 10:30 뉴욕방송 스튜디오에서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를 강사로 초청하여 "미주한인교회 교인과 EM목회자 의식조사"에 기반을 둔 2024 미주 목회 인사이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문의: 646-894-1623

## 영생장로교회, 특별집회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4월 19일(금)부터 4월 21일(주일) 마크 존스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특별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5-542-0288

## 하은교회, 봄맞이 음악회

하은교회(거스 김 목사)는 봄맞이 가족음악회를 4월 21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개최한다. 음악회 수익금은 차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 문의: gracehaeunchurch@gmail.com

## 그레이스벤엘교회, 봄철 부흥회

뉴저지그레이스벤엘교회(담임 장학범 목사)는 4월 27일(토)부터 4월 28일(주일) 광주환 목사(한국 베다니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그레이스벤엘교회 본당에서 봄철 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201-242-8866

덴버한인장로교회, 소리에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예배  
덴버한인장로교회(이형만 목사)는 소리에 지명현 목사를 초청하여 4월 28일(주일) 찬양예배를 개최한다.

▲ 문의: 303-422-6950

##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바이블칼리지 모집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5월부터 시작하는 2024년 바이블칼리지를 모집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목요일 대면 수업, 목적이 이끄는 삶은 금요일 대면수업, 가스펠 프로젝트-예수님으로 보는 연대기 성경공부는 토요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 문의: 김성수 목사(703-678-1158)

## 시온장로교회, 여름학교

시온장로교회(담임 김성은 목사)는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시온여름학교를 연다. 대상은 4살부터 12학년까지이며 4월 15일부터 등록을 시작하며 선착순 55명으로 제한한다.

▲ 문의: 567-210-9131

## 뉴욕센트럴교회, 2024년 봄바자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5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봄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독립기념축제와 장학금을 위해 사용된다.

▲ 문의: 516-387-9940

## 담대한 교회 설립 감사예배

담대한교회(담임 허장길 목사) 설립 감사예배가 4월 21일(주일) 오후 6시에 담대한 교회에서 열린다.

교회주소: 315 W 22nd St. New York, NY 10011

웹사이트: www.manhattanmissions.church

▲ 문의: 516-410-4121



동문 특별 세미나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동문 특별 세미나 개최

### "바른 목회자", 사역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 특별 세미나가 4월 15일(월) 오전 10시 쿤츠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장)를 강사로 "바른 목회자"라는 주제 아래 개최됐다.

1부 예배는 회장 박병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재환 목사(협동 총무)의 경배와 찬양, 대표기도 김지희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김정미 전도사(서기), 말씀 이용걸 목사, 축도 이용걸 목사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건강의 비결(출애굽기 15:26)"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살 수 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즐겁게 살고,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묶여 사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건강하게 된다."고 전했다.

2부 세미나는 "사역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박인수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다.

1강 "바른 목회자(디모데후서 2:15)"에서 이용걸 목사는 목회자로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오랜 경험을 나누며 강의했다. 이 목사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며 목사는 목회를 해야 한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복으로 여기고 섬겨야 한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세워지며,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서게 된다. 목회자의 자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랑해야 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겸손함과 노물과 인내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목회 행정과 목사의 삶, 주의할 점과 심방, 상담, 결혼식, 장례식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목회의 지침을 전했다.

2강 "효과적인 전도"에서 우장환 장로는 영생장로교회에서 전도왕이 되기까지 전도했던 경험과 실제로 전도하는 방법, 효과적인 복음 제시 방법을 나눴다. 3강 "평신도가 바라본 목회자 상"에서 박종교 장로가 강의했으며 4강에서 이용걸 목사는 "바른 목회자" 강의를 마무리 하고 다음 세미나에서 "목회자의 위기 관리"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것을 약속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목사회 은퇴목회자 위로모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욕목사회 은퇴목회자 위로모임

### "영화의 면류관을 기대하라"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 은퇴목회자 위로모임이 4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위로회에는 뉴욕교계의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단체인 뉴욕원로목사회와 뉴욕원로성직자회 관련 목회자들 부부가 참가했으며, 예배와 식사 그리고 선물전달 등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인도 총무 한필상 목사, 경배와 찬양 서기 김경길 목사, 기도 바친하 목사, 설교 회장 정관호 목사, 광고 서기, 축도 한문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정관호 목사는 "영화의 면류관(잠언 16:31-32)"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경륜을 쌓으신 분들을 우리들은 또 진심으로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삶 가운데 많은 풍상을 겪었지만 그것을 또 이겨나가고 승리로 이끄신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특별순서에서 김재열 목사가 인사를 통해 "교회를 지을 때 지역사회와 또 한인사회

를 의해서 쓰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노 목사들을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한 뉴욕실버선교회를 소개하며 실버미션스쿨에 노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 <8면에서 계속>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에 대해 인간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간구이기 때문이다. 요나가 뢰던 배의 선원들은 풍량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곳, 즉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찬미가 드러지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기도 또한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황홀경에 빠져 이성이나 지성의 활동이 없이 의지나 감정의 활동에 의해 기도한다는 소위 '명상기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 쉐퍼드라이어, '십자가상의 칠언' 2024 공연

### 2014년에 이은 10년만의 공연

쉐퍼드라이어(단장 박요셉)는 4월 14일(주일) 오후 7시에 뉴욕총신교회(담임 안재현 목사)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지고 '십자가상의 칠언'을 공연했다.

'십자가상의 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말씀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토대로 만든 곡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세계적으로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작품이다. 쉐퍼드라이어로서는 2014년에 이은 10년만의 '십자가상의 칠언' 공연이다. 쉐퍼드라이어 2024 정기연주회에서는 해금위십 앨범을 낸 바 있는 강리경 해금 연주자가 출연하여 '은 달 마해'와 '은혜로다'를 해금으로 찬양했으며 이어 쉐퍼드라이어 유

영문 지휘자가 속해있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이 출연하여 이한나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날 사랑하심', '모토이 돌' 등을 찬양했다.

쉐퍼드라이어의 이번 정기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상의 칠언'이었다. '십자가상의 칠언' 공연은 유영문 지휘자의 지휘로, 소프라노 김재연, 테너 박영철, 바리톤 한선욱 등의 솔리스트가 출연했다. 나레이션은 성순용이 맡았다. 또 반주는 피아노 김미현과 올겐 김효정 등이 했다. 정기연주회는 뉴욕총신교회 안재현 담임목사의 지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쉐퍼드라이어 연주 공연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제3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 회장 이규형 목사, 이사장 길명순 권사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제3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4월 14일(주일) 오후 5시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이준성 목사(부회장), 경배와 찬양 이광선 찬양사역자, 대표기도 박준열 목사(협동부회장), 특송 테너 김영환과 바리톤 임관순, 말씀 박희소 목사(교협 증경회장), 헌금송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헌금기도 박이스라엘 목사(협동부회장), 축도 황경일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의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시편 128: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감람나무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효용성이 많은 나

무이며, 아주 나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악착같이 살아남는 적응성이 좋은 나무이며, 평화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도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자"고 당부했다.

2부 이취임식은 사회 양은식 목사(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무의 합성통성기도 인도, 시무기도 한문수 목사(뉴욕원로성직자회), 취임사 회장 이규형 목사와 이사장 길명순 권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3회기 회장 이규형 목사는 "행복한 공동체(시133:1)"를 표어로 내걸었다. 그리고 △교역자 영성회복 운동 △교역자와 교회 후원 운동 △세계선교화 회복 운동 등의 연합회의 3대 운동도 발표했다.

뉴욕팬플트찬양선교단의 축가 후에 황경일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의장), 이만호 목사(운영위원), 이창종 목사(교협 부회장) 등이 격려사를 했으며 케네스백(25지구 공화당 주하원 후보, 카이로스교회 성도), 이에스터 회장(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김성권 회장(뉴욕한인상공회), 테렌스박 이사(아시아아메리칸유권자연맹회장), 김성은 목사(워싱턴신학교 학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노재화 목사(전 성경대학교 학장)의 폐회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younsuklee@hotmail.com

##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 홍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제237차 해외성회(237th Overseas Assembly)**

1(월)~ 2(화) 대만(TAIWAN) Taipei Mission MT 주최 : 연세대학교 연부협  
3(수)~ 4(목) 대만(TAIWAN) Yaryu & Jiu Mission MT 주최 : 연세대학교 연부협

5(금) 오후 국세대학교(NTS)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5(금)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이명환 목사) 주최 : 위드(With)부흥사 협의회  
(대표기도: 피종진 목사, 대표축재: 장사무열 목사, 대표회장: 정진오 목사) 010-7733-9106  
6(토) 오전 서울 중랑구 중앙청스퀘어센터 (대회장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7(주) 저녁 일산 능곡교회(조영성 목사) 010-9685-0191  
8(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축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10시 정책위원회(김도희, 11시 4월 월례기도성회 장소 : 남서울중앙교회 6층 본부실)  
9(화)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한) 동서울노회 중경노회장 Event 장소 : 서울 하늘로교회(박성은 목사) 9시 엘기드림 (원장 송영선 목사) 010-2017-8874  
9(화) 저녁 주최 : 그루타기부총사회 (대표축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대문 목사) 010-2296-0675  
10(수) 오후 송추 반석기도원 (원장 고관능 목사) 010-2391-3004  
11(목) 저녁 부천 우리교회(홍은희 목사) 010-7734-8291  
12(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13(토)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13(토)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서울동노회 (노회장 황규래 목사) 010-4423-2838  
15(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02145-0011  
15(월) 오후 목회자 행복전도세미나 주최 : 열방선교총회 (총회장 허은목 목사) 010-3028-1545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1308  
17(수)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이명환 목사) 주최 : 위드(With)부흥사 협의회  
18(목) 오후 주최 : Good TV 부흥총회 (대표축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홍희 목사) 010-7291-0291  
18(목) 오후 서울 기독교유망성 (사장 김우민 목사, 담임 홍성남 목사) 010-4242-5022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1308  
18(목) 저녁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9(금) 저녁 성주서원연합회 장소 : 성주 동부교회(김중현 목사) 010-2380-2024  
20(토) 오전 Special Event Blessing  
21(주) 저녁 서울 영림교회 (김희성 목사) 010-8870-5642  
22(월) 오전 KANKAM 제49회 목사안수식 장소 : 분당합동교회(담임 김승국 목사)  
23(화)~24(수) 천안 위대한이수교회 (윤재민 목사) 010-3980-5991  
24(수) 저녁 대구 추복교회(김사명 목사) 010-8696-8833  
주최 : 그루타기부총사회 (대표회장: 정대문 목사) 010-2296-0675  
25(목)~27(토) 포항 샘물기도원 (원장 박민준 목사) 010-3739-4442  
29(월) 오후 파주 그레이스스퀘어 (원장 정영희 목사) 전국사모세미나 010-5354-5542  
30(화)오후, 저녁 파주 달린교회 (임은경 목사) 010-2473-8023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www.na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국가기도의 날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제73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연다

‘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삼하 22:29-31)’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관하는 제73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가 5월 첫째 목요일인 5월2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성시화 이사장 김재권 장로는 “73회 국가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 47000여 곳에서 국가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한인커뮤니티에서 해마다 열어왔다”며 “많은 교회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각 교회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전통을 세워나갔으면 한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고 기도의 힘으로 버텼었다. 기도해야 나라가 지탱할 수 있다. 한인교회도 함께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박세현 목사(예수교회), 유수연 ABC교육구 교육위원, 이수호 목사(올림픽장교회), 크리스틴 정(사우스랜드교회), 강순영 목사(JAMA),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이사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김철민 장로(CMF가정선교회),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장),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 최금옥 권사(남가주동신교회),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등이 참여해 기도를 인도할 예정이다. 송정명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된다.

올해 기도의 주제는 사무엘 하 22장 29-31절 ‘Lift up the Word, Light up the World(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로 정해졌다. 이번 국가기도의 날에는 남가주 전 교회와 교계 단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설교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맡게 되며 기도의 제목에 따라 20명의 기도 강사들이 기도를 인도하게 된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로 진행되며, 1부 예배는 국유권 목사(중현선교회) 사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 진유철 목사 환영인사,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설교 순으로 진행된다. 진유철 목사 진행으로 열리는 2

“미국 국가 기도회”는 1952년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으며,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기도회다. 국가기도의 날은 미국교회회는 주로 조찬기도회로 열고 있으며 한인교회의 연합 기도회는 저녁에 열고 있다. 자세한 것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인호 목사 (213)663-2228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최인혁 목사가 간증하고 있다

### 최인혁 목사 찬양간증집회 열려

“모든 일에 마음을 담는 것이 신앙이다”

한국 CCM의 1세대, ‘CCM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최인혁 목사의 간증찬양 집회가 CBS기독교방송(사장 한기형 목사) 주최로 열렸다.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12일(금) 오후 7시30분 러빙워십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이사가 43:7.21을 신승훈 목사가 설교했으며 한기형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첫 곡으로 부른 최인혁 목사는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고마운 사람은 예배할 때 내 옆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준 사람”이라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교회, 가정, 직장, 한인사회에서 타인종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로 전해지기를 소

원하며 온 세상이 하늘의 나라로 바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전도해도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착하지 않아서이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아서”라 지적하며 “모든 일에 마음을 담는 것이 신앙이다. 삶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인혁 목사는 ‘성령의 바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사랑하심은’, ‘은혜’, ‘주님 내 안에’ 등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신승훈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한편 5일(금) 오후 8시 ECO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10일(수)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 출판

4차산업혁명의 이해와 교회의 준비 및 대응법 제시

본지 기자 박준호 기자의 저서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가 최근 글마당 아이디얼북스를 통해 출판됐다. 저자 박준호 기자는 “지난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시기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발전되어갈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며 “4세대(LTE) 이동통신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으로의 전환,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6세대(6G) 이동통신과 현재 운용중인 저궤도 위성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 확산,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이 되어있는 다음세대가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는 시점을 주목하며 이 글을 풀어어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교회에서의 모임과 사역을 비롯한 교회에서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게 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박시경 박사(그레이스신학대학교)는 “가까운 미래에 제5차, 6차, 7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들을 긴장시키고 남음이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교회는 탁월한 적응력을 보일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평했으며 정성봉 목사(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지도 목사, Caroline University 디지털농업경영학 교수)는 “우리가 살아야 할 4차산업혁명의 시대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시공간이 된다. 성도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성도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박준호 기자의 저서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는 현재 교보문고, 알리딘, 예스24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vincent@gulmadang.com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

### Seed USA 일본선교 세미나 열어

남가주든든한교회, 5월 6일 오전 10시

Seed USA(대표 임태호 선교사)가 주최하는 일본선교 세미나가 오는 5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홍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누가 무뎠을 교회’를 위해 기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40년 동안 선교하면서, 삿포로 지역에 8개 일본교회를 개척하고,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을 역임한 박영기 선교사가 강의한다. 무뎠을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이다. 일본의 무뎠을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 Seed USA가 일본선교 지원자들에게 40일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의 무뎠을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지원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선교사 학교인 ICMS(Imitating Christ Mission School)에서 40일 동안 받는다. 2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2주는 예수님의 사역, 3주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그리고 일본어 습득을 위해서 현지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담임목회자가 없는 일본 크리스천들을 위해 사

역을 펼치기 원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목회자는 일본어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무뎠을교회를 방문해 보기 △한국인 목회자를 받아들일 일본의 교단이나 교회와 협력 사역을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일본선교사 비자를 신청한다(일본 법무성 입국관리소에 신청하면 1년에서 5년 비자가 나온다) 등의 코스를 밟게 된다. 이번 일본선교 세미나의 등록비는 없지만, 미리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562)926-470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씨든선교회 주최 일본선교세미나

### 서부교계 게시판

#### OC제일장로교회 2024 부흥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2024 부흥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전6시, 오후 7시30분, 주일 1부: 오전 7시 45분, 2,3부 연합: 오전 9시 30분이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현 KAPC 총회장) ▲ 문의: (714)899-9191

#### 제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이 주최하는 제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칼세미나)가 4월 29일(월)부터 5월 4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635-3000

#### 최일도 목사 초청집회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초청집회가 워털러미션 주최로 24일(수) 오후 7시 아이에어연합감리교회(담임 주환 목사), 26일(금)부터 27일(토) 오후 7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28일(주일) 에덴장로교회(담임 인석진 목사)에서 11시에 열린다. ▲ 문의: (303)269-9192

#### 굿트리미션대학

Good Tree Mission University(GTMU)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Early Childhood Education(ECE) 프로그램 학생을 모집한다. 본 과정은 캘리포니아주 인정 교사 양성 과정으로 수시등록이 가능하며 Early Childhood Education(ECE) Required Courses(6과목/ 6개월 과정/ 18학점 이수), 캘리포니아주 Early Childhood Education(ECE) 프로그램 이수 후 교사로 활동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에서 학점 이수 가능하며 개교 기념 장학금(선착순 100명 등록생에게 20% 장학금 혜택), 향후 미국(캘리포니아주) Day Care Center 설립 및 교사로 활동 가능하며 졸업생을 위한 해외 연수 및 선진학교 탐방 기회를 갖게 된다. ▲ 문의: (201)693-1976

####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모집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가 제7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내에 있는 2년제 대학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www.joyfulccc.com)를 통해 자세한 신청안내를 받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4@joyfulccc.org로 5월31일까지 하면 된다. 선발결과발표는 7월 22일이며 장학금수여식은 8월 4일 예정(추후공지)이다. ▲ 문의: scholarship2024@joyfulccc.org



Joy 여성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모습

### Joy 여성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마음이 따뜻한 음악회 가족의 소중함 일깨워’

조이여성합창단(단장 김보강, 지휘 이영희, 반주 나경희)이 4월 13일(토) 오후 6시 30분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가곡, 외국 가곡, 민요, 동요, 성가곡 등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온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구성됐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우산을 쓰고 찾아온 관객들로 예배당이 가득찬 이날 정기연주회는 옅은 핑크색 드레스를 곁들인 조이여성합창단원들이 단가를 부르며 무대로 입장한 후 박장순 목사(새소망장로교회)

의 기도로 시작했다. 1부에서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2부에서는 ‘새, 꽃, 숲, 자연도 모두 우리 가족’, 3부에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연주회가 구성되었으며 ‘내 친구 이야기(Life of Friend)’, 뮤지컬 ‘더 패밀리’에 나오는 ‘쉘(Get Some Rest)’과 ‘우리(We are One)’, ‘꽃밭에서/꽃을 드려요’, 각나라 민요, ‘오늘을 위한 기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등을 불렀다. 또한 조이 콰르텟(Joy Quartet) 김현주, 홍영미, 윤상희, 김선영, 최선희, 김미정 씨가 역시 뮤지컬 ‘더 패밀리’에 나오는 ‘창(Window)’, 그리고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와 ‘주의 은혜라’를 베이스 김성현 교수와 함께 불렀으며 스포트라이트 김현주와 바리톤 김성현 교수가 듀엣으로 ‘행복’을 불렀다. 또한 특별 출연한 조이 핸드벨 팀이 ‘You raise me up’를 연주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공연이 마무리됐다. 2005년에 창단, 정기연주회와 디즈니를 연주회 및 다수의 초청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조이여성합창단은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 문의: 이영희 지휘자(818)419-1582, 김연화 총무(213)210-3513 (박준호 기자)





### “신앙 잃은 탈북민 위해 한국교회가 팔걸어야”

####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 1차 모임

북한의 잇따른 대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교회(김종훈 목사)와 협력해 탈북민 사역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나교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소속 교회로 탈북민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회장 탁군진 장로)은 16일 저녁 서울 중구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탈북민 사역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탈북민 전도를 위한 하나교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모임에는 전국 교회 38곳과

“목회자들은 이들이 저마다의 지역에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연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사에는 통사연과 영락교회 북한선교부가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 및 낭독했다. 낭독자로 나선 공수일 영락교회 장로와 탁군진 회장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경제적 궁핍과 질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적으로도 만연한 물질주의와 온갖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는 남과 북이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복음통일을 지향한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통일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방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회개한다”고 선언했다.

양 단체는 “우리는 북한선교 및 통일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더 높은 관심을 촉구한다. 다음세대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통사연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탁 회장은 “통사연은 올해 외연을 넓혀 연합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모임은 오는 8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레전드 이영표,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초원의 밤을 수놓다

#### 초원의 밤 with 이영표 토크 콘서트, 800여명 참가 성료

크리스천 청년들의 일상 변화를 돕는 플랫폼 기업 어웨이크 코퍼레이션(대표 김민준)이 지난 12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초원의 밤 with 이영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임형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목사, 조원AI의 김민준 대표가 참가자 800여명

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며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초원의 밤’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고민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행사다. 이번 ‘초원의 밤’은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의 후원과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신앙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초원AI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신앙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은 향후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 무연고자 장례까지...교회·기관·지자체 ‘공유 돌봄’ 확산

#### 지역교회, 지자체와 함께 공영장례 지원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된 공영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독거노인 돌봄과 주차장 공유 등 교회의 연이은 공유돌봄 활동이 빛을 발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와 교회 이미지 회복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44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무연고 사망자 1만 명 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 장사시설 관계자는 “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타종교 대비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본향교회(윤석익 목사), 송정소망교회(이장현 목사), 송정제일교회(유갑준 목사) 등은 다른 종교단체 및 장례식장과 함께 광주 광산구와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가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회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을 맡기로 했다. 앞서 대전에서도 지역 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종교단체와 손을 맞잡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나섰다. 교회는 고인의 종교가 기독교일 경우 곧바로 추모 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다른 종교와 분기별로 돌아가며 의식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처한 독거노인을 돌보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교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빛과소금교회(김한원 목사)와 수원제일교회(김근영 목사) 등은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에 정기적으로 생필품이 담긴 사랑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집수리 봉사도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

온라인 선교사역단체 예스히이즈(yesHEis)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최신 인터넷 밈을 가공한 기독교 버전의 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3일엔 7만여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공 얼어붙은 우리 마음 위로 주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를 게시했다. “진짜 천재TV” “트렌드에 민감하다” 등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도용 포스터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밈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스히이즈는 “사단은 네 ‘밈’이야” “주와 함께라면” “하나님은 널 좋아해” 등 일명 ‘이제 개그’를 선보였다. 음식 그림을 혼합한 포스터도 곁들였다. 모든 게시물 끝에는 “예스히이즈의 모든 콘텐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유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롭게 퍼 나르라는 의미다.

### 인터넷 밈 적극활용...신세대 복음 전파 ‘눈길’

#### 청년세대 겨냥 기독교 밈, 복음 전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 반영

“공공 얼어붙은 우리 마음 위로 주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2024년 부상한 유행어인 ‘공공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밈(meme)이다. 밈이란 인터넷 SNS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는 유행어

와 패러디 등 문화 요소를 일컫는 용어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밈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선보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독교인 비율이 낮은 청년세대를 겨냥해 신세대 복음전파의 도구로 활용할만한



### ‘서울퀴어문화축제’ 다음 달 서울광장 개최 무산

#### 12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결정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

다. 서울시는 12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3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3개 단체를 심의의 끝에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확정했다.

신청 단체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여는 서울퀴어축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해 ‘부스트 유어 유스’를 기획한 다시기정무브먼트, ‘책 읽는 서울광장’을 여는 서울도서관 등이다.

위원회는 광장 신고자의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뒤서는 안 된다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를 토대로 행사의 연속성 효율성 대외적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단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양질의 목회자를 키워내는 방안을 전 교단적으로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은 108회기에 13개 지역에서 치유세미나 및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에 약 6억 원을 지원했다. 남은 회기에는 신학교 관련 토론회 외에도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 생명 문명·생명목회 10년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정책 토론회에 대해 “우리 교단이 30년째 생명과 관련된 장기 주제를 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호응이 크지 않았



### 이단·사이비는 연일 이웃사랑 부각해 이미지 세탁하는데...

#### 비신자는 정통교회와 차이 모르는 현실”

이단·사이비종교가 연일 대사회 봉사활동을 부각하며 이미지 세탁에 나서고 있다. 비신자들로서는 정통교회와 이들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

실이다. 한국교회가 교단을 넘어 국가, 학계 등과 연합해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신천지는 전날 보도 자료를 내고 몇 년 사이 자신들의 교세가 급속히 커졌고, 그와 맞물려 지역사회를 위한 폭넓은 이웃사랑에도 나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수년 전 발생한 코로나

19로 신천지의 이단성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신천지 측의 이같은 지속적인 몰타기식 홍보 기사로 사람들의 경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들의 대사회 봉사 활동도 결국은 내부 신도 단속과 이단 교리 포교를 위한 것이라며 경계를 당부한다. 하지만 정통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신자들로서는 이단 교리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기독교이단연구학회(학회장 유영권 목사)가 지난 13일 연 장립 기념 학술회에서는 이단 규정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단별 혹은 개별 연구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대사회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영국 런던경제대학 아일린 바커 교수의 ‘INFORM(인품·종교운동전문정보네트워크)’ 활동도 제시됐다. 인품은 국가와 교회, 관련 학계가 공동으로 이단 등에 관해 연구한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어느 한쪽의 영향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연구기관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단 연구 활동이 사회의 신뢰를 쌓아갈 때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신흥종교 단체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고 했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역사를 배우며 소망을 가진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그의 저작 "이성의 삶: 인간 진보의 단계"(1905-1906), 제1권 "상식 속의 이성"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지식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재 사회 규범과 문제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며, 과거의 교훈을 통해 의사 결정과 미래 방향 설정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우리의 뿌리와 그 이전의 이야기를 탐색함으로써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폴리신학의 역사학교수와 선교대학원장이었던 폴 피어슨은 교회사 중에서 선교 역사를 집중해서 연구한 학자인데 그는 역사 연구를 통해 이런 교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역사 연구는 정체성을 확립해 준다. 둘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안목을 갖게 해 준다. 셋째, 역사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역사 연구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 준다. 다섯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슈들이 반복돼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선교적 이슈들을 인지하게 된다. 여섯째, 역사 연구는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 이슈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선교 운동사를 통해서 중요한 세가지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선교 운동과 부흥 운동의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선교 운동은 항상 성령께서 이끄

시는 부흥 운동에서 시작된다 고 보았습니다. 둘째, 새로운 신학적 돌파 이론입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진행되는 선교 운동은 이전의 신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새로운 신학적 측면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늘 있었다는 핵심 인물 이론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 인물들이 항상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역사에는 변두리 사람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선교 운동을 이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와 교단이 선교적 사명이 있음에도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집단을 통하여 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랄프 윈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이루는 두 조직, 교회 조직(모달리티)과 선교 조직(소달리티) 가운데 선교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두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상태가 오히려 선교를 창조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 인력과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비전을 서로 인정하며 협력하면 선교에 큰 시너지를 가져온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피어슨은 선교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평신도들이 하였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언급하지 않고, 로마의 교회도 어떤 사도나 유명한 사역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현대의 아프리카 교회나 중국 교회의 부흥에도 결정적인 평신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프랑스 리옹에 살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가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성경이 신앙

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강조하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평신도들이 개인적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적 생활에 영감을 받아 발덴파는 빈곤과 단순한 삶을 옹호하며 당시 교회 계층의 부와 권력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민제사장직을 믿으며 평신도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부터 이단으로 선언되고 심각한 박해를 받았으나 회복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신도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슨은 선교 운동은 약자의 복음이 강자에게 전해질 때에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자가 전하는 복음이 약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토착 교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토착 교회 지도자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토착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 신학 교육은 어디까지 해야 하며, 누구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 형식이나 교회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는 새로운 신앙 생활 양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생겨났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은 개신교 선교 운동에 새로운 신앙 생활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교적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신앙을 애써 지키며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선교적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

키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개인 성경 연구에 관심이 많았고, 평신도 사역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라비안 운동과 18세기 복음적 부흥 운동으로 이어져 가며 사회 변혁을 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 교회의 개혁을 보기 보다는 정부와 커다란 박해로 국외로 추방당하며 네델란드와 뉴잉글랜드로 흩어져서 초기 북미의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모라비안 운동으로 이어져 갔으며 그들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5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은 독특한 선교 운동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1822년 아마 종교 박해를 피해 나온 후스와 형제단의 작은 무리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땅인 모라비아 지역으로 이주하며 생겨난 난민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가세 하게 되어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오순절 같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24시간 연쇄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는 향후 100년 동안 지속되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이끄는 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어슨은 그들이 여러 면에서 개신교 수도원 운동과 유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졌고 결혼 대상자를 규정해 따라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도록 훈련을 강하게 받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1732년에 최초로 서인도제도에 선교사를 파송 하였습니다. 1760년 진젠도르프 소전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 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받은 웨슬리 형제의 회심은 영국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의 선교 운동은 사회 변혁 운동으로 총체적 사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피어슨은 선교 운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선교 정보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의 일기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과 부흥을 위한 기도 합주회에 대한 개념, 그리

고 모라비안들의 선교 활동에 대한 정보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이교도들을 개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인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부터 개신교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라투렛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위대한 시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기의 특징은 1) 새로운 선교단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선교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은 다른 세계에 대해 문화적인 책임감을 느꼈으며 일종의 '백인의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주의와 함께 선의로 동행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섬기었습니다.

또한 학생 운동들이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윌리엄스대학의 건초터미 기도회가 시발이 된 형제회(the Society of Brethren), 신학교들이 참여한 선교탐구학회, 1844년에 설립된 YMCA 등이 후에 학생자원운동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 세상을 복음화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파송한 결과는 1000명 미만의 선교사 숫자가 25년 후에 9,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45년 이후에는 2만5백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대전 이후 신학 타락과 유럽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실망감, 리더십의 부재가 학생 운동을 쇠퇴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선교 운동에서 여성 선교사들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피어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무명의 사역자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일곱 명의 여성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최초의 해외선교회가 발족하기 10년 전에 메리 웹의 선교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물론 선교를 위한 기도와 자금 모금을 위한 정도로 제한되었지만 결혼한 선교

사로 나가게 되었고, 부인 선교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위해 독신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860년까지 미국 선교부는 남자 567명, 여성 691명의 선교사를 임명했는데 독신 여성들이 124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30여 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 일 하였습니다. 후에 여성들만을 위한 선교사협회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여성 사역자가 해외로 파송되었습니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여성 선교사협회가 41개가 될 만큼 성장하였는데 피어슨은 그 이유를 여성 교육의 변화와 여성들이 교사로 진출하게 된 것과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대한 세기에 중요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선교대회는 선교 역사의 이정표였습니다. 존 모트의 리더십으로 선교단체들과 독립교회 단체에서 파송된 1200여 명이 참석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17명의 아시아 대표가 참석하였으나 그 외에는 모두가 서양인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연합정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후에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변질되어 1948년 WCC(세계교회협의회)가 설립되고 세계선교의 주제는 점차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1974년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세계선교위원회가 조직되고 로잔 연약을 만들었으며, 1989년 2차 로잔 마닐라대회, 2010년 3차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가 열렸고, 2024년 9월에는 제4차 로잔 서울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전말이 어두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한 민족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른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dr.yongcho@gmail.com

###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5)

강태광 목사  
(월드세어USA대표)



##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루이스가 1942년 발표한 서간체 소설이다. 이 작품은 C.S. 루이스를 영국 사회에 작가로 등장시킨 작품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31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이 글은 영국의 성공회 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같은 이름의 현대 영국 일간지가 있다)에 매주 연재되었던 글이었다. 첫 번째 편지 즉 첫 칼럼은 1941년 5월 2일에 세상에 나왔다. 가디언지 5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그 후 이 글은 매주 연재되었고 11월 28일 판에 마지막 글이 실렸다. 이 편지를 쓰면서 힘들었다고 루이스는 고백한 적이 있다. 생전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C. 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는 일이 즐겁지 않았고 "삭막하고 불쾌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루이스가 악마를 생각하고 악마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과 그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인간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루이스는 이 글을 1940년 6월 14일 주일 아침 옥스포드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착상했다고 전해진다. 예배를 드리며 집중하지 못하던 루이스에게 갑자기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전략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전략에 맞서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정리했다. 루이스는 형 위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배 설교시간에 이런 잠생각을 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C. 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원고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디언은 글 한 쪽 당 2파운드의 원고료를 지불해야 했는데, 루이스는 이를 거절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원고료를 받는 대신에 영국 성공회 목회자의 미망인을 위한 재단에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루이스는 이런 나눔을 평생 실천했다.

매주 연재되는 글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1942년 2월에 서른한 통의 편지 모두가 포함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미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글들은 출판 당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영국은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8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다.

경험 많고 노화한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꽃내기 악마인 윈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편지들이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이 가득한 이 책은 윈우드가 맡은 '환자'(이 책에서 악마들은 자기들이 각각 책임지고 있는 인간을 '환자'라고 부른다)의 회심부터 전쟁 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사소한 일들로 유발되는 가족 간의 갈등, 기도에 관한 오해, 영적 침체, 영적 요소와 동물적 요소를 공유하는 인간의 이중성, 변화와 영속성의 관계, 남녀 차이, 사랑, 웃음, 쾌락, 욕망 등 삶의 본질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1941년 가디언지에 루이스의 글이 게재될 때 많은 독자가 환호하였고, 대중의 큰 인기를 누렸지만, 오해도 있었다. 모든 독자가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루이스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어느 시골 목회자는 가디언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 윈우드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조언들은 "그릇된 것들일 뿐 아니라 확실히 악마적"이라며 구둑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답게 지적이기도 하고 거만

하다. 스크루테이프의 31통의 편지는 흥미롭게도 나름대로 고정된 형식이 있다. 중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로 윈우드로부터 환자(기독교 신자에 대한)보고를 받고 윈우드의 행동을 평가한다. 그래서 편지 서두는 "지난번 편지에서..."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스크루테이프는 윈우드에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인간들을 유혹할 수 있게 조언한다. 둘째로 스크루테이프는 인간 유혹이 목표다. 유혹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혐오한다. 이것이 스크루테이프가 윈우드에 편지로 소통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신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신자를 돌려가 다시 악마의 수하로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계략을 전한다. 물과 영혼에 빠져있는 악한 습관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 윈우드에게 안내한다. 셋째로 스크루테이프는 그 유혹의 주제들을 인간에 접목할 때, 극단의 방법보다는 오히려 미적 접근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루이스의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를 들어 스크루테이프는 윈우드에게 사색이나 논쟁

이나 공포나 피곤 등은 오히려 그 극단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고 경고한다. 인간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을 아는 스크루테이프는 윈우드에게 오히려 피상적인 희망을 품게 하여 타락을 평가한다. 넷째로 악마는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위엄을 손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루이스는 거의 모든 편지에서 악마가 패배에 신음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번번이 실패하는 스크루테이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능을 느끼게 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고참 악마의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스크루테이프가 애처롭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악마의 본질을 파헤치기도 하지만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고발한다. 이종태가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악마의 삶에 대해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한 것은 통찰이다. C.S. 루이스는 영악하게 접근하는 악마의 계략을 고발하면서 인간이 경각심을 촉구한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 (마28:1-4) 찬151장

첫째,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정한 때에 진정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 날, 새벽 곧, 죽으신 후 사흘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성전을 혈면 삼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대로 삼일 만에 사셨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다시 증거했다. 둘째,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다(2-3) 지진, 번개 빛,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러냈다. 하나님 임재의 징

징들이다. 모든 구속의 상징주의는 예수의 부활로 성취된 것이다. 셋째, 파수군의 기절이 그의 부활을 증거한다. 예상치 못한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하고 말았다.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절하였지만 마침내 그 앞에 쫓겨나짐으로 복음의 위력을 증거 했다. 이 놀라운 부활을 세상에 증거 하는 삶을 살자!

#### 화 인생이 무엇이나?(시90:1-7) 찬 302장

40년의 광야생활을 포함한 120세의 일기 속에 보인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도록 창조되었다. 무에서 시작하였기에 하나님 만을 거처로 삼을 때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생은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티끌이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대로 인생은 지나간 어제며, 밤의 한 경

점이며, 홍수가 쓸어간 순간이며, 잠깐 자는 순간이며 신속히 지나가는 화살 같고 아침 풀과 같다.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으로 특징짓는다. 죄로 인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존재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는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증거한다.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

#### 수 의인의 찬송 (시92:1-15) 찬 450장

안식일의 찬송 시로 알려진 본 시편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다. 주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와 구원 하심 속에 그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깔려있는 것을 내다 보고 영광을 돌린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그의 사랑과 성실을 찾아볼 때 감사와 찬양할 이유를 알 수 있다. 둘째, 악인은 망하기 때문이다. 이

와 달리 악인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 흥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구원과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굽의 패망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셋째, 의인은 번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인은 의인의 행동과 번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결실이 풍성할 수 밖에 없는 의인의 길은 복이다.

#### 목 왕이신 하나님 (시93:1-5) 찬 313장

권위의 옷과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세계를 견고하게 하시는 왕이신 여호와와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첫째, 그는 세계를 다스리신다. 나라와 족속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활동이 그의 손 안에 들어 있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 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바울의 찬양은 그 왕의 다스리심을 본 데서 나온 것이다. 둘째, 그는 영원부터 계셨다. 그 왕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그는 영원부터 계

셨다. 그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시다. 그 왕의 다스림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복이다. 세상이 요란해도 그 왕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계속된다. 셋째, 그는 거룩하시다. 역시 그는 확실한 증거와 거룩함을 가지신 왕이시다. 그의 성품으로 온 세상이 중만하기를 원하신다. 그 왕의 거룩 성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 일하신다. 영원 무궁하신 그 왕께 자신을 즐거움으로 드려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 금 위대하신 왕 (시95:1-11) 찬 585장

크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노래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노래로 크게 외침은 그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죄에서 건지시고 진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이기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둘째, 영드려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섭리주로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백성은 그 분께 향

상 영드려 경배 해야 한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 분께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한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 찬양과 경배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열매이다. 이스라엘이 므리바와 맛사에서 행한 일은 모두 교만에서 나왔다. 크신 왕께 겸손한 마음으로 영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관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이다.

#### 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시97:1-12) 찬 539장

공평과 의를 기초로 삼은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만유를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났나? 첫째, 모든 자 연법칙의 운행은 물론 만유 위에 자신의 의를 세우시고 세밀하게 심판하신다. 구름, 흑암, 번개, 산들, 땅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심은 임재하심으로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중에서도 그 왕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친히 다스리신다. 그 왕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뜻에 순종

함이 진정한 지혜이다. 둘째, 언약 백성인 시온을 다스리신다. 헛된 우상을 제하시고 자기 백성을 모든 난관에서 친히 구원의 손을 펴시어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광명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신다.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만을 경배할 수 밖에 없다. 그 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 기독교 교육 (47)

#### 기독교 교육을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 서번트 리더십을 제안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 1904-1990)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매니저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했습니다: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1.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단기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팀원들의 장기적인 발전을 비전으로 삼는다.
2. 그들은 매일의 문제들을 팀원들의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3. 그들은 많이 경청하고 적게 명령한다.
4. 그들은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좋은 질문을 던진다. 팀원들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한다.

그린리프는 이런 관찰결과를 토대로 하여 1970년 The Servant As Leader(리더로서 서번트)라는 책을 써서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당시에는 서번트 리더십이 경영학계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4월 경영관련 서적 전문출판사인 조시베스(Jossey-Bass)사가 On Becoming a Servant-Leader(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를 출간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경영학자들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의 모델을 독일의 헤르만 헤세(Herman Hesse)가 1932에 발표한 작품인 동방순례(Die Morgenlandfahrt: Journey to the East)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소설은 H.H.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였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레오(Leo)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H.H.는 일단의 구도자들과 몇 가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아마도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몇 가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지만—그 목적들은 비밀의 영역에 속하기에 말할 수 없다—순례에 참가한 자들에게는 누구나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고, 있어야 했다." 그들은 한 종교단체의 순례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순례는 시공을 초월한 여행이었습니다. "공간적으로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여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동방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중세나 황금시대(Golden Age—문명의 진보가 절정에 이르러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시대)로도 행진하고 있었다."

그 순례단에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짐 나르는 일을 도왔고, 때로는 대변인의 사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남자는 여단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구석이 있었고, 부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그는 즐겁게 일했다... 그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니면 눈에 띄지도 않는 이상적인 하인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하인

레오가 실종되자 우리는 갑자기 잔인할 정도로 불화했고, 우리 사이에는 불신의 심연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우리의 결속도 산산이 조각나버렸다." 여행의 가치와 순례자들의 동지애, 믿음, 맹세, 생활 전체가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순례자들이 불안함을 느꼈고, 그들 속에 의심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면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의 신상을 비난하거나 모독하는 발언도 하고, 서로 붙잡고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심부름꾼이었던 레오가 없이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오가 없어진 뒤에야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레오는 바위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모든 것의 중심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인에 불과했던 그가 순례자들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결국 동방순례가 멈추고 H.H.는 레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디어 그를 찾았을 때, 레오는 "교황처럼 장중하고 찬란한 예복을 입은 그는 줄지어 앉아 있는 상급자 사이로 걸어가 최고 지도자의 옥좌로 올라갔다." 사실 레오는 그 순례자들이 속한 종단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순례단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린리프는 레오에게서 서번트 리더의 전형을 봤습니다. 그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봉사와 헌신'으로 조직을 이끈 레오를 리더의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린리프였지만, 그가 그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왔다고 마태복음 20:28과 마가복음 10:45에서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크리스천들이 서번트 리더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것만 보면, 그 다음 구절에는 큰 명령이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82. 팔리는 아버지, 팔리는 남편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교육 평준화로 여성상위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부장적 남성상위시대는 옛말이 되었고,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추락, 상실되면서, 이제는 팔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팔리는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믿기지 않는 실화 같은 3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문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그 광고에는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임금 십만 원이면 아버지를 팔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바라보고 혀를 끝끝 차며,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고 속닥거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설움을 지냈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그 곳을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땀을 가다듬은 부부는 심호흡을 머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광고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곳은 아주 부자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박또박 뚜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긋 웃음을 지으시더니, "내가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젊은 부부는 모두가 어릴 때 부모를 여리고 고아처럼 살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설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내겠느냐고, 비록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끼자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달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담은 흰 봉투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아 들고 나서,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젊은 부부는 다시



금 그 집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하시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려오너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는, 양자를 데려오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저희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면, 저희를 따라 가져야지요. 비록 저희들은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고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정 흐뭇한 마음으로, "너희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모를 섬겨려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너희 것이며, 너희는

나로 인해 남편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라고 하시고 기뻐하시며 자신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미담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신문광고를 내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일에 신경을 안 쓰고 주말만 되면, 골프나 낚시를 즐기지만 한다는 것입

니다. 광고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영가로 양도함. 사냥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보고 흥미를 가진 여성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살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전화, 남편이 그래도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한 주부의 조언,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어려웠다는 어느 이혼녀의 충고, 더러는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웃어넘길 만 한 일이면 서도 현대사회의 가정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광고이기에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를 파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 남자를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5층으로

되어있으며, 일단 어떤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형인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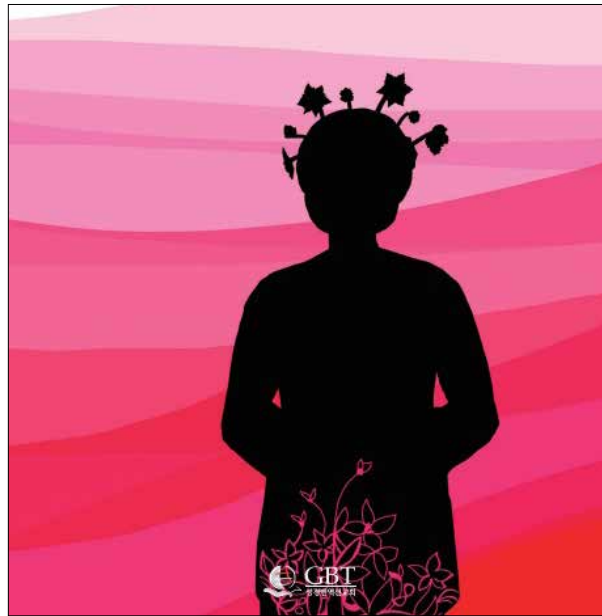
두 여자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를 사려고 1층에 당도하니, 안내문이 하나 걸려있었다. "이 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음, 더 올라가 보아야지 하며, 2층에 가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흠, 아주 좋아. 그래도 위층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지? ㅎㅎ. 3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 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와! 하지만 위층에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ㅎㅎㅎ하며, 4층을 올라갔다. 4층에는, "이 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 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4층이 이 정도라면 위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상상조차 안돼! 아우~ 두 주먹에 힘을 쫘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는 문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층은 비어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고, 혼자 사셔야 합니다." 여성상위 시대에서 팔리는 이상형 남편감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지만, "욕심이 과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여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은 20개의 혈값에 노예로 팔렸지만(창 37:28),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개의 혈값에 팔렸지만(마 26:15), 마침내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남편(남성)의 권위가 추락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혈값에 팔려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찬란한 대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티도르 종족

▲ 인구 약 26,000명

▲ 종교 이슬람교 95%, 복음화율 5%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티도르족은 주로 말루쿠 군도의 티도르섬에 산다. 농사, 낚시, 교역 등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사촌간 결혼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결혼한 부부는 양가 부모 중 한쪽과 함께 살기도 한다. 과거 티도르의 술탄이 말루쿠 지역의 이슬람 확산과 발전의 중심이었을 정도로 충직한 이슬람교도들이며, 모든 마을에 이슬람 사원이나 작은 기도처가 있다.

- ▲ 기도제목 1. 번역된 말씀을 통해 티도르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2. 강한 이슬람 문화와 전통을 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3.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Churches listed include New York, New Jersey, and Hawaii churches.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임지영 집사  
(얼바인 주교회)



「탕부 하나님」을 읽고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넓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크고 완전하신 사랑을 담아내기에 나의 말과 글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 지를 자주 느끼곤 한다. 이렇듯 인간 존재로서의 한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지만, 일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일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분이 계신 그 곳,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갔던 순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다. 위대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그 분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다. 그때의 감동은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 순간은 분명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후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끈고하거나 지칠 때마다 들여다보는 일기장 속의 추억처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 된다. 당시에는 뿌연 거울처럼 희미했던 그 구원사건의 의미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해석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말이다. 이처럼 거듭남의 체험은 일회적이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내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당신이 마침내 나를 찾아내셨군요. 내가 무지와 이기심으로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허비하며 그것들이 마침내 바다날 때까지 질주하는 모습을 보시며 참 많이도 안타까워하셨을 테지요.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게 시선을 향한 채 나의 등이 아닌 얼굴을 마주 볼 날을 고대 하셨을 테지요. 눈앞의 안개가 걷히고 당신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껏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요." 저자는 책 서두에 둘째 아들의 범주를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혹은 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첫째 아들의 범주를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자들'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제껏 이성적 본문을 접할 때마다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아들의 구분이 단편적으로 오히려 쉽게 다가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 범주의구분이 애매모호하고 헷갈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답답한 마음으로 수년 전에 기록해 두었던 설교 노트를 뒤져서 읽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마

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내신앙의 여정은 초등학교 시절, 동네 친구를 따라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20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시기 동안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첫째 아들'이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죄인 됨을 한 순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되었던 그 순간 나의 정체성은 '둘째 아들'이었다. 성경 본문 속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은 둘 다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이다. 예수님나 혹은 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첫째 아들의 범주를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자들'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제껏 이성적 본문을 접할 때마다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아들의 구분이 단편적으로 오히려 쉽게 다가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 범주의구분이 애매모호하고 헷갈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답답한 마음으로 수년 전에 기록해 두었던 설교 노트를 뒤져서 읽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마

을 얻는 것이다. 탕부 하나님께서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생명, 모든 만물을 대하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안에 채우기를 원하신다.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신다. 그렇게 그분은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죄와 구원',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도'라는 추상 명사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허무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세우신다.'는 구체적 동사로 바뀌기까지 그분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말씀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다. 그 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2008년, 유난히도 힘겨웠던 내 인생최대의 위기의 순간들을 이토록 담담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취와 행위에서 찾으려고 했던 20여 년간의 무수한 시도들이 처참히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율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으며, 내 잦대로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 하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무시와 경멸로 내 마음과 입술을 더럽히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 삶을 냉소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영과 영이 맞닿아 있음을 느낀다. 혹은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한다. 나에게도 그들이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이다. 우월감과 비교 의식, 적대심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다. 자신이 행한 선행이 칭찬이나 실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혼란과 분노는 불만족과 불행의 삶의 연속으로 이끈다. 도덕적 행위 가운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 결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인간적인 편에서 희생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을 예측하고 감내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겠다. '본대로 경험대로 행동한다.'는 당연한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을 경험한 만큼 이 땅의 수많은 동생들에게 희생할 수 있다.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들과의 영적인 연결 고리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는 덤으로 주어진다. 주는 자가 복 되도다. 이쯤 되면 내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들이 준 것인지..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그분의 사랑에만 집중한다면 나머지 죄의 심각성을 놓치기 쉽다. 때문에 '타냥 방종한 삶에 빠진' 둘째 아들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아간다. 두 가지 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는' 인간의 어리석고 오만한 시도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종종 본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일과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곳, 즉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분의 오래 참음과 연단 하심을 통해 완성해 가신다. 때때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공허함과 메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때는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의 은유하지만 각성을 촉구하는 분명함음이 울려 퍼진다.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흔 아홉을 가지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그하나, '진리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황폐한지를 알고 있기에, 그럴 때마다 '주님, 어디 계시죠?' 나직이 그분을 부르며 그분의 충만한 사랑이 내 온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하며 비교 의식이 사라진다. '불편한 편의점'라는 책에서 '비교는 암, 격정은 독'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예수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 그보다 나은은 당연하다. 초고를 쓰고 꽤 오랜 시간 미뤄두었던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읽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괴로워하는 작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경험한 것 같다. 이 쫓기듯 조마조마한 마음이 순간순간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내년으로 미룰까?'하는 나태함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처음 도전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글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다.'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 나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저의 수많은 경험과 생각들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만나 또 다른 무수한 생각과 경험들이 생겨났다. 그냥 두었으면 머릿속에 맴돌다 흩날리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소중한 깨달음의 조각들을 들을 글에 담는 과정 중에 하나 들쭉 정리되어가는 즐거움을 선물해주신 저자 팀 켈러 목사님과 미주 북부 방송, 세계 한인기독교언론협회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부족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베드로 진서 20

클리넥스

우리들의 가난한 시절 화장실에 갈 때 휴지는 신문지 아니면 헌 책갈피 한 두 장이었다. 그 이후로 휴지란 게 있었고 따로 구별해서 쓸 수가 있

었다. 그러다 우리는 클리넥스라는 휴지를 가깝게 사용하였다. 클리넥스? 클리넥스인지 클린넥스인지 발음도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휴지의 대

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휴지를 말할 때 클리넥스라 불렀다. 한 목사님은 자신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 자리가 곳곳에 클리넥스가 놓인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인지 안다고 했다. 그 목사님 나름의 판단 방법이겠지만 일리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는 옆

드려 기도하다가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올라올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때문에 휴지를 찾게 되고 교회는 이를 대비하여 클리넥스를 미리 마련해둔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날 한 집사님이 클리넥스를 박스로 사다놓았다. 클리넥스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을 들은 후부터 나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클리넥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곤 한다. 과연 오늘의 교회에 눈물이 있는가? 과연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나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 클리넥스가 내 주변에 있는가? 클리넥스만 아니라 휴지 사업이 잘 되는 날이 와야 할 텐데.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